

김 경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최 정 순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최 정 순

인 준 서

최정순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 인구통계적 변인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화장행동은 유행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 자존감, 과시성의 7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특성은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을 포함하였는데, 성격은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의 4개 요인, 죽음태도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회피, 접근적 수용, 중립적 수용, 도피적 수용의 5개 요인, 우울감은 불행감,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감,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의 5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는 각각 호의성, 세련성, 개성, 품위성의 4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60~80대 노년여성 651명이었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계수 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t -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여성의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개성,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 선호는 일반 화장이미지의 각 요인보다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일반 화장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 요인에서 모두 개성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으며,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 선호는 높은 편이었다.

둘째, 일반 화장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 화장이미지보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낮았으나, 암전함과 단정함은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호도 순서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일반 화장이미지는 편안함, 여성적, 온화함, 아름다움의 순으로 선호하였고, 영정 사진 화장이미지는 단정함, 여성적, 편안함, 온화함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따라서 노년여성은 영정사진 화장에서 단정한 이미지에 대한 추구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인구통계적 변인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호의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학력이 높고 종교가 있으며, 화장행동 중 과시성과 도구성이 높고, 불행감,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의 성향이 높을수록 호의성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주관성의 화장행동이 높고, 친화성, 죽음의 중립적 수용도가 높을수록 호의성을 중요시 하였다.

세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 학력이 높고, 화장행동 중 과시성, 도구성, 동조성이 높고, 죽음의 접근적 수용, 불행감, 인지기능 저하, 신체적 약화의 성향이 높을수록 세련성을 선호하지 않았다. 거주지가 서울이고, 성실성과 죽음의 중립적 수용이 높고, 화장행동 중 자존심, 주관성, 대인지향이 높을수록 세련성을 선호하였다.

개성에 대한 분석 결과, 외모관리비가 많고, 성실성이 높고, 도구성의 화장행동, 신체적 약화, 불행감, 인지기능 저하가 높을수록 개성을 선호하지 않았다. 거주지가 서울이고, 사회경제적 수준, 소득, 개방성, 외향성이 높으며, 화장행동 중 자존심과 유행성이 높고, 죽음의 중립적 수용도가 높을수록 개성을 선호하였다.

품위성에 대한 분석 결과 학력이 높고, 도구성의 화장행동, 인지기능 저하, 불행감, 신체적 약화가 높을수록 품위성을 선호하지 않았다. 개방성이 높고, 화장행동 중 자존심, 개성, 유행성이 높을수록 품위성을 선호하였다.

넷째,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인구통계적 변인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호의성에 대한 분석 결과, 화장행동 중 유행성과 과시성이 높고, 죽음의

접근적 수용, 사회적 활동 저하가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호의성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소득, 사회경제적 수준, 친화성이 높고, 화장행동 중 주관성,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와 중립적 수용도가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호의성을 더 중요시 하였다.

세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 과시성의 화장행동, 죽음의 접근적 수용, 불행감과 사회적 활동 저하가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세련성을 선호하지 않았다. 외모관리비가 많고, 성실성, 정서적 불안감, 주관성의 화장행동이 높고, 죽음의 중립적 수용 및 죽음회피가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세련성을 선호하였다.

개성에 대한 분석 결과, 죽음의 도피적 수용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개성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거주지가 서울이며 외모관리비가 많고, 학력, 개방성, 유행성의 화장행동이 높고, 죽음회피, 정서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개성을 선호하였다.

품위성에 대한 분석 결과, 거주지가 서울이며, 죽음의 도피적 수용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품위성을 선호하지 않았다. 외모관리비와 소득이 많고, 화장행동 중 자존심이 높고, 죽음회피, 신체적 약화가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품위성을 선호하였다.

이상과 같이 화장행동, 개인의 성격, 죽음태도와 우울감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가 메이크업의 한 분야로 자리 매김하는데 초석이 되며, 뷰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5
1. 화장행동	5
2. 성격	10
3. 죽음태도	15
4. 우울감	19
5. 영정사진	23
6. 화장이미지	26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1
1. 연구문제	31
2. 측정도구	32
3.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35
4. 자료분석	39
IV. 연구결과 및 논의	40
1.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화장이미지 선호의 요인분석	40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48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성격의 차이	53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	57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61
6. 인구통계적 변인과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66
7. 인구통계적 변인과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70
8.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74
9.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일반화장이미지 선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77
10.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85
11.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89
V. 결론 및 제언	93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설문지 구성	34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37
<표 3> 영정사진 선택 특성	38
<표 4> 화장행동의 요인분석	40
<표 5> 성격의 요인분석	42
<표 6> 죽음태도의 요인분석	44
<표 7> 우울감의 요인분석	45
<표 8> 화장이미지 선호의 요인분석	47
<표 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51
<표 10>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52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성격의 차이	55
<표 12>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성격의 차이	56
<표 1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	59
<표 14>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	60
<표 1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64
<표 16>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65
<표 1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68
<표 18>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69
<표 1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72
<표 20>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73
<표 21>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76
<표 22> 화장행동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78

<표 23> 화장행동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79
<표 24> 성격과 일반 화장이미지선호의 상관관계	80
<표 25> 성격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81
<표 26> 죽음태도와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81
<표 27> 죽음태도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82
<표 28> 우울감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83
<표 29>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84
<표 30>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88
<표 31>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9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망한다. 또한 사후에도 자신의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가 받기를 원한다. 연령이 높아지면 죽음을 예측하여 누구나 영정사진을 준비하며,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 경우 고인의 이미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기가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과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죽음을 앞둔 이에게 있어서 축복 일 것이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준비해 두는 영정사진은 살아 있었던 동안에 본인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족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택하게 된다.

장미영(2012)은 영정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으며, 노년들이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각자의 삶의 질에 따라 드러나는 감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기질과 그 동안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죽음의 태도 등 본인들의 내면이 표출되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영정사진 메이크업 방법은 달라지며, 평소에 했던 화장행동과 우울감 정도에 따라서도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는 달라진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욕구는 시대와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원하는 기본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서은혜(2012)는 화장을 한 모습과 하지 않은 모습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화장을 한 모습은 자아감각을 높이고 자기 개성을 실현하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 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임정미(2011)는 노년기 여성이 외모관리행동에 관심이 많을수록 화장 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대인지향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 형태인 경우 화장 관심과 화장 후 기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화장행동이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최수경, 강경자, 2007)에서는 대인지향형일수록 화장의 대인지향이 적극적으로 상승하고 기분전환, 자신감 증대, 긴장해소 등이 화장심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사람이 화장을 함으로써 좋은 이미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장은 자신을 치장하여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게 한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노년여성의 화장행동에 따른 영정사진 이미지 선호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평소의 품성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죽음을 예측하여 준비하는 태도 및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장행동과 심리적 특성인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노년여성의 화장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노년 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원진, 김정옥, 2003), 여성의 화장행동이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최수경, 강경자, 2007), MBTI와 여성의 화장 심리에 관한 연구(박선희, 2008), 노년기 여성의 화장관심과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임정미, 2011)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장과 화장의 심리에 관한 연구로 영정사진 화장이미지를 적용하여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노년의 화장행동과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60대 이상의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행동과 심리적 특성인 성격, 우울감, 죽음태도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년여성들의 화장행

동과 화장이미지 선호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노년 화장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인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특성,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과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밝힌다.

둘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화장행동

1) 화장행동의 개념

화장은 16세기의 셰익스피어 희곡 속에 페인팅이라는 용어로 처음 등장 하였는데, 16~17세기에 연백의 원료로 만든 분을 페인트라 불렀고, 그 후 다채로운 안료를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페인팅이라고 하였다 (James, 2003, p.193). 화장은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행위이고 자신의 몸을 가꾸며, 외부에 돋보이려는 본능적인 욕구로서, 여자들이 분, 연지 등의 화장품을 발라 얼굴을 곱게 꾸미고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화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양진희 외, 2011). 현대의 메이크업은 인간신체의 일부분에 색상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외형적 아름다움의 추구 뿐만 아니라 성격과 가치, 미의식 속의 자아를 하나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전체적인 자신의 이미지 표현 방식이다(김희숙, 1998).

화장은 직접적인 창조행위를 넘어 자기 효용과 대인적인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 수행과 현 상태 이상의 자기 가치를 상승시키며, 자존심의 향상, 타인으로부터 얻는 평가를 높일 수 있는 만족을 보여준다(김명리, 김주덕, 2005). 여성은 화장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들의 마음가짐도 조심스러워지며, 자기조절 기능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차린다고 할 수 있으며, 정체성 혹은 여성성과 관련된 자기 개념의 차원으로 화장을 통해 여성스러움에 대한 자기 고정 관념화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으로 인한 사회화된 자기 개념을 내면화 하게 된다(백경진, 김미영, 2004).

화장행동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미의 추구에 있으나 이는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그 자체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며, 심리학적으로는 자기만족감의 추구, 자기 개성의 실현 및 자신의 자아감각을 높이는 이상적인 이미지의 추구에 있다(Dichter, 2002). 여성의 화장행동은 개인적 욕구 즉, 자기 개념, 미에 대한 욕구나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기는 하나 사회적 소통으로 인해 사회적 기대에 따른 화장을 하고 자기 개념의 구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대인지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인식하려는 사회적 행동인 것이다(조안진, 2014). 개인의 외모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행동으로서 자신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자아에 관한 정보이며, 외모를 통해서 자아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화장은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타인을 향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를 보여주는 행동지표이다(박은아, 2003).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첫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초점이 되며, 그 형태적 특성에 따른 다른 인상을 전달한다(강명주, 2007).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기 위한 화장은 결점을 커버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관계에 따른 역할로서 작용하여 관계의 강화와 사회적 승인을 얻고 만족하게 된다. 화장한 얼굴은 자신의 매력성이나 여성적인 느낌이 증가되어 사회적 기술을 포함해 사회적 매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大坊郁夫, 1990), 화장으로 자신만의 고유미와 개성미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처럼 화장행동은 자기 효용에 알맞게 이용되어지고 그 목적에 따라 이해되고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화장행동관련 선행연구

화장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행동 변화는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이러한 화장행동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현숙(2000)의 화장에 대한 의존도에서 자기표현, 활동성향, 유행에 대한 민감도, 만족 등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화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화장 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 화장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개인적인 행동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은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화장을 함으로써 여성은 자아정체감을 형성·재구축하며 다양한 자기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였으며, 마치 남성이 면도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례적인 행동이면서 동시에 천연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원진, 김정옥(2003)의 연구에서 노년여성은 화장을 하면 기분이 전환되고 마음이 안정되며 긴장이 풀리고 표정이 밝아지고 상쾌한 기분이 들며 심리적 안정감 측면의 만족감 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적극성 측면의 만족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화장 후 외모 변화를 통해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 후 긍정적인 대인지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명리, 김주덕(2005)은 화장을 하면 활동성이 좋아지고 하나의 사회적 예의로 의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며, 화장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고 사회적 대인지향을 원만하게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임미연(2005)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대해 자기만족지향과 자의식이 높은 집단의 여성들은 화장 사회·심리적 기대감이 높을 뿐 아

나라 화장행동과 자의식이 독립적이고 기대효과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겠다.

김기범, 차영란(2006)은 여성들은 화장을 예뻐질 수 있는 수단,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등의 수단적 의미와 사회 속에서 타인에 대한 예의 등의 사회적 차원, 성숙이나 어른의 상징으로서 화장을 이해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도구성과 사회적 및 성숙성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수경(2007)은 화장행동을 화장에 대한 선택, 사용, 평가, 관심 및 태도를 의미하며, 화장에 대한 도구성, 유행성, 대인지향, 동조성, 개성, 과시성으로 표현되는 행동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도구성은 화장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나 기분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행동이며, 유행성은 유행에 관심이 많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새로 유행한 화장품을 먼저 구입하여 최신 유행에 맞추려고 신경을 쓰는 행동이고, 대인지향은 사회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여성의 기본적인 예의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화장을 하는 행동이고, 동조성은 소속감의 표시로써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타인과 유사한 화장품을 사거나 화장을 하려는 행동이며, 개성은 화장을 할 때 독특한 스타일이나 색을 선택하며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이며, 과시성은 화장을 통해서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유명상표의 값비싼 화장품을 선택하려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최수경(2007)은 화장을 하는 공통된 목적이 미를 추구하는 욕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미를 추구하는 화장행동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의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양하, 김기범, 차영란(2007)은 여성들은 화장을 할 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를 포함하지만 화장에 대한 욕구와 신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념보다는 욕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장행동

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장마음의 사회인지모형과 비교해 보면 정서는 욕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수경, 강경자(2007)는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가 연령이 높을수록 화장을 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화장 후 마음이 차분해져서 안심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선희(2008)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와 여성의 화장 심리에 관한 연구에서 화장이 개인의 개성보다는 화장품 회사에서 제시하는 미용정보나 유행하는 연예인의 화장을 자신의 개성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으로 여성의 미의식이 개성적, 독창적이기 보다는 모방과 유행의 사회 환경적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

임정미(2011)는 노년기 여성은 화장 관심이 많을수록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 형태인 경우에 화장관심과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활동을 할수록 화장관심과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노년기 여성의 경우 대인지향을 하고, 화장에 관심이 많으며, 화장을 할수록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은혜(2012)는 자기애성향, 신체 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연구에서 신체관리 노력은 외모상승의 즐거움을 주고, 신체불만족은 자신감 향상의 도구로서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아졌으며, 신체 의식이 뚜렷하면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화장행동에는 화장의 관심과 외모관심도에 따라 다양한 심리 변화를 가져 왔으며, 대인지향이 활발한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2. 성격

1) 성격의 개념

성격(personality)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정되어 삶의 전 영역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성격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적 특성으로 생각, 감정행동의 특성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환경에 관계없이 개인행동에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haresp, Chaplinp, 1997). 따라서 성격은 개인의 자질과 환경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는 개인의 성격차이와 성실 및 예의의 개방성에 따라 좌우 된다(Ozer, Benet-Martinez, 2006, p.404).

성격의 어원은 고대 로마의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서 분장을 하지 않고 얼굴 전체를 가리기 위해 가면인 페르조나(persona)를 착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페르조나는 라틴어 ‘에트루리아(Etruria)’에서 파생된 단어로 일상적인 단어 사용에 있어 사회적인 ‘역할’, ‘캐릭터’, ‘배우의 연기’를 의미하며(Schultz & Schultz, 2012. p.7), 관객이 배우의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스토리의 다음과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에서 페르조나는 성격의 어원이 되었다.

성격은 사람의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 개인이 그 환경에 대하여 독특하게 적응할 수 있는 행동의식의 전체적인 조직체이다. 인간의 다양한 특성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기본특성’,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중심특성’, 가장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것은 ‘이차적 특성’이다(Hardeep, 2010, pp.440~441).

성격은 1923년 심리유형론(psychological type)이라는 Jung(1875~1961)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 개인의 고유한 정신활동을 의미하

며 MBTI에 의해 분석된 지표로 측정 된다(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5). Jung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인간이 가지는 심리적인 기능을 주기능인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 부기능인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의 다양한 행동에는 직관의 기능이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심혜숙, 이숙미, 1996).

개인이 가지는 성격은 외향성(extra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이 있고 외향성을 행동 지향적(action-oriented) 성격으로, 내향성을 사고 지향적(reflective-oriented)성격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Jonassen, Grawbowski, 2011, p.367). 성격은 전형적인 내향성자와 외향성자가 될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 중복되고 교차된다고 하였고, 사람들은 양성동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내향성과 외향성 중 하나는 존재하며 하나는 의식적으로 존재하여 우세한 쪽이 지배적 이라고 하였다(전수영, 2013). 이와 같이 성격은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개인과 타인간의 관계이며(Sullivan, 1997), 유전학 및 생물학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 연구에서는 대부분 성격의 특성을 유전학과 경험, 환경의 영향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며, 독특하게 보이는 개체의 모든 인식적, 감정적, 의지적 및 신체적 특징의 통합체로써 성격이 지닌 독자성에 중점을 둔다(Engler, 2008).

1980년대 후반까지도 성격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왔으나 Big 5 framework가 성격 연구에 통합을 이끌어 내었다.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테스트하여 5가지의 성격 특성인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성격 특성을 개념화 하게 되었다(McCrae, Costa, 1987). 외향성은 활동성, 솔직성, 명랑 등 인간관계 범위와 열정, 상황 주도성 등 업무 추진의 적극성을 의미하며, 친화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 성실성은 성실하고, 신중하고 철저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계획성이 있고, 신뢰감을 주며 끈기 있고, 목표지향적인 성격특성을 의미한다. 신경증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 세상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방성은 상상력을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고, 지적으로 민감한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김해룡, 김정자, 2013).

이처럼 성격은 독특한 성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와 감정, 삶의 양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상황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2) 성격과 외모연구

성격에 대한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소에 따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행복감과 창의성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1997)은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성격의 5요인을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성실성, 이지성으로 분류하였다. John, Srivastava(1999)와 Gosling, Rentfrow, Swann(2003)이 개발한 5요인 BFI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으로 분류되었다. 외향형은 자신의 견해나 새로운 발상을 주저 없이 피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의력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외향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책임감이 더 높게 평정되어 있었으며,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협조적이라고 하였고,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덜 협조적이라고 하였다.

김대영, 유태용(2002)은 성격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성격으로 구분하였는데, 호감성 성격은 조직 규범 준수와 가장 큰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재광(2003)은 소비자 성격유형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유형이 수입유명상품을 선호하였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을 고려하는 유형들이 판매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염인경, 김미숙(2004)은 성격 유형 및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연구에서 차분한 내성형의 성격은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착용하고, 의존적 즉흥형의 성격인 경우에는 클래식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하며, 독립적 외향형이 토탈 코디네이션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은정, 정명선(2010)은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이 체중관리, 피부관리, 메이크업, 헤어관리, 의복선택 등 전체적인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자기애적 성격이 강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박숙현(2011)은 성격유형에 따른 베스트컬러, 패션 컬러와 톤, 패션스타일 및 패션 악세서리에 대한 선택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성격과는 무관하게 유사한 선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2011)은 간편형 한국어 BFI 타당화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우울,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와 신경증은 부적상관을 보였고,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정윤, 민경환, 김민희(2012)는 성격 10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성격의 5요인과 주관적 안정감, 삶의 만족, 불안, 우울의

상관분석 결과 네 가지 심리적 적응 지표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격 요인들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은 신경증성향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불안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뿐이었다.

고경숙(2012)은 미용전공 학생들의 성격유형별 외모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 의존성에 관한 연구에서 직관적-사고형, 직관적-사고형, 감각적-감정형, 감각적-감정형, 직관적-감정형 순으로 외모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모하숙, 박미라, 하대현(2013)은 Big 5 성격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에서 성격,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신경증과 자기 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외향성, 지적 개방성, 친화성 및 성실성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성실성과 자기효능감의 상관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은 능력에 대한 신념이 반영되는 반면 친화성은 대인지향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신뢰, 이타, 협동과 같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성격 요인에 비해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외향형의 성격은 외모에도 관심이 많고 유행에 민감하며 자기애적 성격이 강할수록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고, 내성형의 성격일수록 조용하고 클래식한 것을 좋아하며 개인의 개성보다는 미용정보 등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죽음태도

1) 죽음태도의 개념

죽음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며,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즉 죽음 준비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념을 수정하여, 삶의 체계나 불행한 사건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켜 삶의 긍정적 질서와 목적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처기제를 찾는 것이다(이영순, 2010).

죽음 불안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삶의 필연적인 종말을 의미하며, 억압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이다(Kuber-Ross, 1981, p.18). 죽음불안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의 혐오, 죽음의 수용과 죽음의 회피로 정의 할 수 있다. 죽음 불안이나 죽음 공포 등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Michael(1979)은 임종에 대한 공포, 존재 여부에 대한 공포, 사후 결과에 대한 공포, 타인의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로 구분 하였다.

Tomer, Eliason(1996)은 죽음에 대한 노인의 견해에서 과거와 관련된 후회와 미래와 관련된 후회, 죽음의 의미라는 세 가지 직접적인 결정인자가 있다고 하였다. 과거와 관련된 후회는 후회를 많이 느낄 때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인식하고 미래와 관련된 후회는 기본적인 미래의 목표를 채울 수 없다는 것과 죽음을 무의미하게 인식할 때 죽음 불안이 높다고 하였다(Victor, 2006).

Heidegger(2008)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여정에 오르고 결국 언젠가는 모두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Futures, 2008).

죽음은 한 생명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최후의 과정을 말한다. 또한

죽음은 삶의 거울과도 같아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끝맺는 방식은 곧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를 평화롭고 의연하고 인간답게 마감할 수 있을 지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다(서석희, 박선애, 2007). 그러므로 죽음은 죽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점이다. 죽음의 문제는 다른 유형의 삶의 문제와는 달리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그런 이유로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절망하거나 거부하거나 도피하려는 심리에 빠져들게 되며 종교적 방식을 통해 죽음을 초월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정동호 외, 2004).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생존의 조건을 이루는 필수적 요소이며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꺼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죽음에 대하여 자각하기 시작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갖게 된다. 죽음이 닥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운명과 타협하고 우울해 하다가 결국 수용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다(최성재, 장인협, 1987). 죽음 불안은 우리 인간이 노년기에 맞게 되는 자아통합 대절망의 위기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발달 과제로 노년들은 죽음에 직면하여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자아통합을 이루고 죽음 불안도 줄어드는 반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죽음불안의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Magai, Susan & Fadden ,1996).

죽음공포는 인간이 느끼는 공포 중에 제일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공포의 뿌리에는 죽음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죽음공포는 자기가 없어지는 데에 대한 공포라 할 수 있다(최준식, 2013)

이와 같이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죽음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의 양면을 모두 지닌 죽음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죽음태도의 선행연구

삶의 마지막이라는 죽음 앞에서 갖는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elter(1979), Wong, Reker, Gary, Gesser(1994)의 연구에서 제시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죽음수용의 3요인 모델은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 접근적 수용(approach acceptance) 및 도피적 수용 (escape acceptance)으로 구성된다. 중립적 수용은 죽음이 삶에서 불가피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비교적 담담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접근적 수용은 행복한 사후세계와 관련된 신념과 관련된 것으로 사후세계가 현세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거나 영생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에 대해 덜 불안해하고 죽음을 보다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피적 수용은 삶이 고통과 비탄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홍숙자(1992)는 한국 거주노년과 재미교포 노년의 생활만족도 비교연구에서 노인은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순응하거나 죽음을 고통, 슬픔, 고립, 외로움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인과, 광동일, 조숙행, 이현수(1997)의 연구에서는 죽음태도가 정서적 불편감 요인, 비판적 사고 및 불행감 요인, 사회적 철수 및 활동감소 요인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고 한국형 노년우울검사(KGDS)는 기준 검사에 비해 타당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김지현(2008)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공포라는 정서적 측면, 죽음을 삶의 일부라고 간주하는 죽음수용의 인지적 측면 및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개인적 효능감의 신념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영순(2010)은 건강하다고 느끼는 노년일수록 죽음 불안 정도가 낮았으며 여자노년이 남자노년에 비해 죽음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지현, 민경환(2010)연구에서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성별과 종교에 따라서 죽음태도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고, 죽음 공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경제 수준이었으며, 성실성과 같은 성격 변인은 노년기 죽음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송양민, 유경(2011)의 연구에서 노년들의 죽음불안은 죽음준비 교육을 받은 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도 유의미하게 향상 되었으며, 죽음불안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형수, 김지민(2013)의 연구에서 노년의 종교는 심리적 안정감 및 죽음태도의 변인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종교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은주(2013)의 연구에서 노년의 여가스포츠 활동정도는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 참가 빈도가 높을수록 존재상실 불안은 낮고 참가 강도가 높을수록 죽음 과정 불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의 여가 스포츠 활동 정도는 죽음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회적 지지와 우울감을 통하여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보였다.

죽음은 모두가 맞는 과정이지만 여가 활동과 사회적 활동 및 생활양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우울감

1) 우울감의 개념

우울감(depression)이란 실망적인 삶의 결과로 나타난 슬픔, 낙담, 절망과 같은 느낌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한다(Edwin, Wallace & John, 2008).

우울감은 노년의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서 이론적으로는 기분 장애로 분류되며, 여러 증상, 유전적 취약성, 환경적 촉진인자, 치료에 대한 반응 등으로 이루어진 질병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증후군으로(박화옥, 손덕순, 2005) 인간의 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란한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 발생으로 의기소침, 활동력 저하, 비판적인 생각, 무쾌감증, 슬픔과 같은 증상이 있는 기분 장애 중 하나이다(Preston, 2006).

우울감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내인성인 일차적 우울감(primary depression)과 외인성인 이차적 우울감(secondary depression)으로 나눈다. 일차적 우울감은 개인 내부의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며, 이차적 우울감은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노년기에는 이차적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승덕 외, 2001). 노년기 특징 중 가장 큰 것은 우울감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Atchley, 1994). 신체적 질병, 배우자나 친구·친족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인 상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경제수준의 하락, 정년퇴직, 노년에 대한 경시와 같은 사건들은 노년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오세근 외, 2012).

노년 우울감의 증상은 직접 우울감 보다는 우울감 증상에 수반된 건강 염려증, 잠들기 어려움, 초조 등이 먼저 오고 심한 우울증 노년의 경우에

는 치매와 같은 임상 양상을 보인다(기백석, 2004). 노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질환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세가 이런 환경적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인식하고 있다(김도훈, 2004).

우울감의 증상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잦은 재발과 만성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고 기능손상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Brown, Virginia, Stoffel & Davis, 2010). 이와 같이 우울감은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인의 삶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2) 우울감의 선행연구

우울감은 개인의 성향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상실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높고 특히, 노년들의 경우는 심신이 약해져 우울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우울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승덕(1995)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서 연령별 우울의 경우 60~64세에서 예로 응답한 경우 남녀 각각 35.64%, 37.02%, 아니오인 경우 64.36%, 62.98%로 나타났으며 70~74세에서 예로 응답한 경우 44.24%, 46.35%, 아니오인 경우 55.76%, 53.65%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우울 척도상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나 남자노년보다는 여자노년이 우울정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정(1999)의 사회적지지 관점으로 본 가족부양이 노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기능취약과 부정적 부양행동이 상호작용하여 기능취약이 노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부정적 부양행동을 많이 받은 노년들은 기능취약이 심해질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손덕순(2005)의 연구에서 노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학력, 종교 활동, 경제상태가 노년 우울감의 하위영역인 비 활력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활력적이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배우자나 가족과 동거할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할수록 노년의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엄인숙(2008)의 연구에서 노년의 여가활동은 스포츠 활동과 관람감상 활동이 유의수준 하에서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 행동은 노년기 노년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원정제(2009)는 노년들의 외모 관심도는 헤어스타일, 옷차림이 가장 관심이 많았고, 소수의견으로 몸매, 피부, 화장으로 나타났으며, 노년들의 85%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고, 미용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노년의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백지은(2010)의 연구에서 노년여성은 객관적 특성 중 병원에서 질환으로 진단 받았던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지각 특성 중 자신의 연령에 대한 지각인 인지연령은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은 우울감에 자신의 경제수준에 대한 지각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상미(2012)는 긍정심리치료가 노년들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긍정심리치료 실시 후에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제외한 노년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수준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우울감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윤정선(2013)은 노년의 생활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노년들의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스트레스는 우울을 유발시키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우울은 감소되며, 대처방식에 따른 우울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은주(2013)는 노년들에게 여가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경우 우울감이 감소할 수 있으며, 노년들은 노화를 경험하고 신체,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에 노출되면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에 잘 노출되는데 이런 노년의 우울감은 자살과 연관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노년 자살 문제와 고독감, 소외감,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김재현(2013)은 노년들의 여가 참여특성에 따른 우울감, 사회적응, 여가 만족,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 참여 노년들의 신체적 우울감은 여가 참여 노년들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사회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인지적 우울감과 신체적 우울감은 여가 참여 노년들의 정서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활동적이지 못한 노년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초래하고 행동적 우울감은 여가 참여 노년들이 사회적응에 있어 충동성과 책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울감은 노년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활동량과 삶의 질에 따라서 우울감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5. 영정사진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남기려는 이유는 살아 있는 모습의 재현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려는 욕망에서 시작한다. 인간의 모습을 최초로 재현한 것은 BC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예리고(Jericho)’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두상은 실존 인물의 두개골을 오브제로 하여 석고를 입혀 복원한 두개골로써 생전의 모습을 복원한 이유는 죽은 자가 재생했을 때 다시 돌아와 안착할 곳이 얼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안상성, 1998).

얼굴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이집트에서 제작된 미이라 주인의 초상화에서도 볼 수 있다. 미이라를 덮은 얼굴 부분에 쓰여진 나무판에 그려진 죽은 사람의 초상이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이것은 그 인물이 살아 있을 때에 제작되어 사망 후 매장할 때 붙여지는데 정면상 또는 4분의 3 정면상의 흉상으로 되어 있으며, 눈이 선호되고, 음영의 조화도 잘 이루어져 있으며, 초상은 죽은자의 육체 대신에 혼이 머무는 장소가 된다고 생각하여 그리스풍의 묘사 방법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Gombrich, 1977).

사진은 서양 근대사회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신흥중산층 즉, 브로조아 계층의 발생과 함께 물질 소유의 수단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 이전, 선택받은 귀족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초상화는 자신의 위대한 기념비의 종적을 보존하고자 자신의 큰 저택이나 기념관 등에 자신의 화가를 고용하였으며, 위엄하고 당당한 자세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 자랑스럽게 걸어 놓고 후대에 업적을 알리려고 했다. 처음엔 세밀 화가를 시켜 자신의 땅을 있는 그대로 그리게 하였고, 그 당시 화풍으로도 세밀화풍이 상당히 주류를 이룬다(Jean, 1999).

초상화를 카메라 루시다라는 기계로 그리게 되다가 오늘날의 카메라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켈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어 사진이 탄생이 되었다(Beaumont, 1992).

초상사진이 본격화되어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1854년 프랑스의 앙드레 Adolphe-Eugene Disderi에 의해서 특허를 받은 명함판 사진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다수의 부르조아 집단들이 초상사진을 신분 과 시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에 등장한 초상사진의 경우 귀족임을 드러내는 소품들 예를 들면 금장식 의자 등이 필수로 이용되었다. 당시 유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전쟁터에 나간 가족, 친지, 친구들과 오랜 시간 헤어져 있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었기에 초상사진의 필요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박주석, 1998).

사진에 나타난 얼굴은 개인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뿐 만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적·지적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사진에서 본인의 감정을 친숙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단순히 거울을 효과를 기록하는 수단이 아닌 것이다(Jean, 1999).

결국 인물을 주제로 한 사진은 용모를 이상적으로 승화시켜서 일종의 기념비적인 위엄과 위풍을 추구하는 것과 일상성과 인간 감정을 포착하는 것으로 대별 할 수 있을 것이다(고영일, 2011).

영정사진은 곁으로 드러난 모습을 부동의 이미지로 보고 고정되어있는 시선 앞에서 가장 예식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어색하고 서투른 행동으로 위협을 줄이고 사진을 찍기 전에 이미 결정지어 있는 대로 자신의 준비된 이미지를 남에게 전한다는 것이다. 시간성을 부여하는 사진의 힘에서 벗어나 초시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김경미, 2000).

인물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영정사진은 고인이 죽었을 때 명복을 비는 용도로 사용하며 많은 조문객과 상주들이 슬픔을 맞이하고 이 사진을 다시 지방으로 사용하여 후손들이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신위로써 사용한다(정연옥, 2003).

김미혜(2010)은 장례메이크업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장례 서비스는 한 사람의 죽음이 마지막 단계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와 기억에 담아둘 남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 영위를 돕기 위한 중요하고도 숭고한 절차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장례 메이크업 분야도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영순(2010)은 노년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에서 죽음준비 중 1순위가 영정사진 준비였으며, 2순위로 장례유형(매장, 화장, 시신기증) 사진준비로 노년들에게는 영정사진 준비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죽음에는 슬픔이 있으나 죽음은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일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영정사진은 죽은 사람을 대변하는 상징물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살아있을 때를 기억하는 이들이 찾아올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을 단정하고 편안하게 촬영하는 것은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화장이미지

1) 화장이미지의 개념

화장이미지란 여러 가지 화장품과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화장을 하였을 때 느끼는 화장으로 인해 변화된 이미지를 말한다(이화순, 황춘섭, 2002).

이미지는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이나 심상’이라고 정의(두산 세계대백과, 2002)되며, 특정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지식과 가치로 볼 때 실제적인 요소들과 감정적인 요소들이 조합된 것으로 부분의 합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전체로서의 복합물이다(Marks, 1976).

이미지는 어원상 라틴어의 ‘표상.모방’을 뜻하는 아마고(imago), 모방하고 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미토르(inmitor)’에서 유래하였다(Kirsten, Piet, 2011, p.40).

얼굴은 건강상태, 나이, 성별, 감정 등 언어 이외의 모든 것을 나타내어 주고(Graham, Kligman, 1984), 얼굴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의 상호작용 및 개인 각자의 생활환경에 의한 연상이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내는 시각적 표상이다(한명숙, 선정희, 2001). 또한 얼굴이미지에서 보여 지는 화장은 자기 평가 및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자신의 공동 이미지를 화장으로써 통제할 수 있으며, 화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보완이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신의 이미지에 변화를 준다(Cox, 1986).

메이크업 이미지는 패션 이미지와 연결되는데 로맨틱 이미지, 자연 이미지, 클래식 이미지, 민속풍 이미지가 대표적이다(김수진, 한명숙, 1998). 로맨틱이미지는 프랑스어의 로망(roman:소설)에서 그 어원을 찾아 볼 수

있고, 가공의, 허공의, 공상적인, 낭만적인 이라는 뜻으로 넓게는 로맨틱한 환상에 충만한 예술경향을 총칭하며, 좁은 뜻으로는 19세기 유럽 전반에 퍼진 예술 사조를 말한다. 딱딱한 고전주의에 반해 자유로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낭만주의에서 유래하였다(Frank, 2002). 로맨틱 이미지는 이노센트(innocent), 미네트(minette) 등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이노센트(innocent)는 맑고 청순하다는 의미로 티 없이 맑고 깔끔한 인상을 주며 소녀스타일의 청초한 패션 감각을 뜻하고, 미네트(minette)는 프랑스어로 멋을 내는 젊은이 소녀, 귀여운 어린이란 뜻으로 젊은 나이의 여성을 말한다. 패션에서의 미네트는 가벼운 마음으로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생활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새롭고 멋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의 패션을 의미한다(이성욱, 신지현, 2000).

자연 이미지는 자연에서 나타내는 모든 색상으로 에콜로지(ecology), 프리미티브(primitive)등이 속한다. 에콜로지는 생태학이란 뜻으로 희랍어 오키오스(.okios:집)와 로고스(logos:학문)의 합성어이다. 독일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Emst Haeckel)에 의해 1866년 처음 사용되었으며, 생명 또는 생물과 그 환경의 상호관계에 의한 과학으로 정의된다. 프리미티브는 '원시의', '원초적인', '태고의', '발달되지 않은', '원색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프리미티브 이미지란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태고의 순수함을 느끼게 하는 원시적 이미지를 말한다(Aapo, Jarmo & Patrik, 2009).

클래식 이미지는 '고전적', '전통적의', '모범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Bonner, 1972), 그리스, 로마 문예의 고전풍 또는 유행을 넘어선 전통적인 스타일을 가리킨다. 트레이디셔널 이미지는 평범하고 순수하며 실용적인 스타일로 '전통의', '전통에 근거한', '고풍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진다(김혜경, 2010).

민속풍 이미지는 '인종의', '민족의', '민속풍의'라는 뜻으로 라틴어의 에스니쿠스(ethnicus)와 그리스어의 에스니코스(ethnikos)에서 유래하였다.

원래 에스닉은 ‘민족의’라는 뜻 외에 ‘이교도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보았을 때, 비기독교 문화권인 중동, 아시아 지방의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느낌을 말한다(Tom, 1990).

이와 같이 고풍스러움과 클래식함 때로는 소년다움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화장이미지는 여성들에게 자기표현 방식의 도구로써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2) 화장이미지의 선행연구

화장이미지는 자기 자신의 개성 표현방식이며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중요 요소로 화장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화순(2002)의 연구에서 화장이미지는 세련성, 품위성, 호의성, 개성의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품위성과 개성이미지가 화장의 기대효과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가치 표현효과에 대해 기대정도가 지각 화장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화장의 효과에 대한 기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화장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현정, 김미영(2006)의 연구에서 화장이미지 선호도는 자연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젊은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낭만적인 이미지의 선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영희, 박혜원(2008)은 1970년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와 메이크업 특성연구에서 사회적 이미지와 관련된 특성을 검소하고 단정한 이미지, 귀엽고 청순한 요조숙녀이미지, 경박하고 퇴폐적인 이미지, 현대적인 직업여성의 이미지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여성 스스로가 연출하려는 의도나 사회적 이미지에 부응하려는 의도된 이미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고 하였다.

김희숙(2008)은 한국적 화장기법을 한국적이미지, 한복·양장에 조화되는 이미지, 중성적 이미지, 내추럴리즘 이미지, 소피스케이트 이미지로 분류하였고, 한국여성은 골격에서 보면 평면이기 때문에 명도와 채도가 높고 펄이 있는 색상을 아이새도우 색상으로 선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자연스럽고 간결하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화장으로 입체감을 주는 것보다 눈, 코, 입을 또렷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한보현(2009)은 메이크업 이미지 지각분석을 세련성요인, 온유성요인, 품위성요인, 성숙성요인으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세련성은 세련적이고 현대적이며, 온유성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품위성은 얌전하고 고상한 것으로, 성숙성은 성숙하고 점잖은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명숙, 선정희(2001)는 웨딩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을 우아한 이미지, 현대적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 화려한 이미지로 분류하였고, 웨딩메이크업이미지와 색상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우아한 이미지는 브라운계열이 가장 높고 핑크계열이 그 다음이었으며, 현대적 이미지는 핑크계열이 가장 높았고, 귀여운 이미지는 오렌지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홍성순, 오은정(2001)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색조화장 표현도와 색조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색조화장시 표현하는 이미지를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 우아하고 품위있는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 단정한 이미지로 구분하였고, 여성들은 색조화장을 통해 단정한 이미지와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민제(2011)는 한국 여성의 화장이미지를 각 이미지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엘레강스 이미지는 핑크빛 피부 표현에 눈, 코, 입, 눈썹 등에 포인트를 준 입체적 얼굴 화장이며, 내추럴 이미지는 고운 살결의 흰

피부에 붉은색 입술을 한 화장과 높은 눈과 맑고 어려보이는 청순한 눈으로 표현한 화장이며, 로맨틱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핑크의 파스텔 무드로 시작하여 맑고 깨끗한 클리어 화장, 윤택한 피부에 면의 채색을 위주로 한 은은한 화장으로 표현되어 현대적 여성 이미지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서란숙, 이정민(2013)의 연구에서 추구이미지 화장은 세련된, 개성/매력 있는, 자연스러운, 품위있는, 귀여운, 여성스러운의 6개 이미지 추구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화된 집단별 분포는 '여성스러운 이미지집단'이 가장 많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추구집단', '품위 있는 이미지 추구집단', '개성/매력있는 이미지 추구집단', '세련된 이미지 추구집단', '귀여운 이미지 추구집단'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유진(2014)의 연구에서 화장이미지 선호도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화장이미지는 차이가 있었으나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한 듯 안한 듯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화장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여성이미지 선호도에서도 남성은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여성은 커리어우먼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장색채 선호도에서는 남녀 모두 피부 톤과 가까운 브라운 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장이미지는 얼굴이미지에 크게 작용하였는데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화장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자연스런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화장이 자기가치 표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현대여성이 추구하는 화장이미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인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성격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6.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7.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일반 화장이미지선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간에 상관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8.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9.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

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60세 이상의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화장이미지 선호, 인구통계적변인 및 영정사진 선택 특성의 6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수는 129 문항이었다.

1) 화장행동

화장행동은 백경진, 김미영(2004), 최수경(200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성, 유행성, 대인지향, 동조성, 주관성, 과시성, 자존감의 7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30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2) 성격

성격유형은 John, Srivastava(1999), Costa, McCrae(1992), Gosling et al.(2003), 김지현 외(2011)에서 사용되었던 BFI의 요인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구분하였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15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3) 죽음태도

죽음태도는 Wong et al.(1994), Hoelter(1979), 김지현(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회피,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도피적 수용의 5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25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4) 우울감

우울감은 기백석(1996), 정인파 외(1997), 엄인순(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정서적 불안감, 불행감, 신체적 약화,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활동 저하의 5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15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5)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

화장이미지 선호는 Graham, Kligman(1984), 이화순(200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이미지와 예비조사의 질문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고, 수정 보완하여 세련성, 품위성, 호의성, 개성의 4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32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6) 인구통계적 변인과 영정사진 선택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거주지, 외모관리비(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유무, 종교유무, 학력, 총 가정의 총 소득(월), 결혼여부, 가족형태의 총 10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부가적으로 영정사진

선택 특성으로 영정사진 선택 사항과 영정사진 준비 의향의 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모든 척도는 선택형으로 이루어졌다.

<표 1>은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측정방법	출처	문항수
화장행동	5점 척도	백경진, 김미영(2004) 최수경(2007)	30
성격	5점 척도	John, Srivastava(1999) Costa, McCrae(1992) Gosing et al.(2003) 김지현 외(2011)	15
죽음태도	5점 척도	Wong et al.(1994) Hoelter(1979) 김지현(2008)	25
우울감	5점 척도	기백석(1996) 정인과 외(1997) 엄인숙(2008)	15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5점 척도	Graham, Kligman(1984) 이화순(2002)	32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	5점 척도	Graham, Kligman(1984) 이화순(2002)	32
인구통계적 변인과 영정사진 선택 특성	선다형	연구자	12
합계			129

3.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와 일반 화장이미지에 대하여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를 자유진술식으로 노년여성 20명에게 2014년 6월1일에서 6월5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영정사진 이미지를 평가하는 형용사를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 문항 개발에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6월15일에서 7월10일에 걸쳐 서울의 노인대학 3곳, 노인복지관 17곳, 노인정 25곳에 연구요원을 보내어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노년여성이 있는 곳은 배부하여 수거하였다. 읽을 수 없는 노년여성이 있는 곳은 연구요원이 일대일로 읽어주면서 설문을 받아 적는 방법을 같이 이용하였다. 680부 배부 중 665부가 수거 되었으며 그중 무성의하고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총 651부를 최종 통계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영정사진 선택 특성 분포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는 <표 2>와 같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거주지,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유무, 종교유무, 학력, 소득, 외모관리비, 결혼여부, 가족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영정사진 선택 특성은 영정사진 선택 사항과 영정사진 준비 의향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72.8세이며 최소 60세에서 최대 89세로 구성되었다. 60대가 259명(39.8%), 70대가 206명(31.6%), 80대가 186명(28.6%)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72.8세로 ± 8.3 세였다. 거주지별로는 전체 대상의 95.9%가 서울지역이며, 사회경제적 수준은 상이 142명(21.8%), 중이 276명(42.4%), 하가 233명(35.8%) 수준이었다. 이들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111명(17.1%)이며, 종교는 전체 대상자의 43.0%가 없었고, 학력 분포는 초등졸 이하는 265명(40.7%), 중졸이 128명(19.7%), 고졸이 177명(27.2%), 대졸 이상은 81명(12.4%)으로 구성되었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은 223명(34.3%), 100~200만원 미만은 170명(26.1%), 200~300만원 미만은 131명(20.1%), 300만원 이상은 127명(19.5%)으로 구성되었다. 외모관리비는 10만원 미만이 347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20만원은 171명(26.3%), 20만원~30만원은 85명(13.1%), 30만원 이상은 48명(7.4%)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26명(4.0%), 기혼이 625명(96.0%)으로 구성되었다. 가족형태는 일인세대가 145명(22.3%), 부부세대는 193명(29.6%), 배우자와 자녀는 154명(23.7%), 배우자와 손·자녀는 126명(19.4), 기타는 33명(5.1%)으로 구성되었다.

<표 2>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N=651)

변인	항목	N(%)
연령	60대	259 (39.8)
	70대	206 (31.6)
	80대	186 (28.6)
거주지	서울	624 (95.9)
	기타지역	27 (4.1)
사회경제적 수준	상	142 (21.8)
	중	276 (42.4)
	하	233 (35.8)
직업유무	유	111 (17.1)
	무	540 (82.9)
종교	유	371 (57.0)
	무	280 (43.0)
학력	초등졸 이하	265 (40.7)
	중졸	128 (19.7)
	고졸	177 (27.2)
	대졸 이상	81 (12.4)
가정의 월소득	100만원 미만	223 (34.3)
	100~200만원 미만	170 (26.1)
	200~300만원 미만	131 (20.1)
	300만원 이상	127 (19.5)
외모관리비	10만원 미만	347 (53.3)
	10~20만원 미만	171 (26.3)
	20~30만원 미만	85 (13.1)
	30만원 이상	48 (7.4)
결혼여부	미혼	26 (4.0)
	기혼	625 (96.0)
가족형태	일인세대	145 (22.3)
	부부세대	193 (29.6)
	배우자와 자녀	154 (23.7)
	배우자와 손자손녀	126 (19.4)
	기타	33 (5.1)

연구대상자의 영정사진 선택 특성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영정사진 선택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사진이 129명(19.8%), 신분증용 증명사진이 75명(11.5%), 영정용 영정사진이 400명(61.4%), 기타 사진은 47명(7.2%)으로 구성되어 60세 이상 노년여성들의 61.4%가 영정용 영정사진으로 자신의 영정사진을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영정사진 준비 의향에 대해서는 그렇다 386명(59.3%), 그렇지 않다 134명(20.6%), 그저그렇다 131명(20.1%)로 나타나 영정사진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영정사진 선택 특성

(N=651)

변인	항목	N(%)
영정사진 선택 사항	일상적인 생활사진	129 (19.8)
	신분증용 증명사진	75 (11.5)
	영정용 영정사진	400 (61.4)
	기타사진	47 (7.2)
영정사진 준비 의향	그렇지 않다	134 (20.6)
	그저그렇다	131 (20.1)
	그렇다	386 (59.3)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둘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넷째,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화장행동, 죽음태도, 우울감,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성이 조사된 경우에는 Duncan의 다중비교를 통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 화장행동, 죽음태도, 우울감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인구통계적 변인, 영정사진 선택 특성, 화장행동,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화장이미지의 요인분석

1) 화장행동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전체 30개 문항 중 2개 문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요인 1은 유행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762이고, 전체변량은 9.865%였다. 요인 2는 동조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669이고 전체 변량은 9.534%였다. 요인 3은 주관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654이고 전체변량은 9.479%였다. 요인 4는 도구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565이고 전체변량은 9.162%였다. 요인 5는 대인지향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372이고 전체변량은 8.471%였다. 요인 6은 자존감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072이고 전체변량은 7.400%였다. 요인 7은 과시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062이고 전체변량은 7.364%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는 .68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7개의 변인이 전체변량의 61.27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수경(2007) 연구에서 6개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7개의 요인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이는 과시성에 대한 측면이 자존심과 과시성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표 4> 화장행동의 요인분석

요인 1. 유행성	요인부하량
유행하는 립스틱을 꼭 한번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772
인기 있는 연예인의 화장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737
친구와 주변사람의 화장한 상태가 마음에 들면 똑같이 해보고 싶다.	.697
TV광고나 잡지에 나오는 모델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	.659
나는 화장할 때 현재 유행하는 화장법을 따른다.	.470
고유치=2.762 전체변량(%)=9.865 누적변량(%)=9.865 α 신뢰도=.804	

요인 2. 동조성	요인부하량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화장을 해야 편하다.	.761
내가 속한 집단의 화장하는 기분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755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비슷한 스타일이나 색상의 화장품을 택한다.	.705
나는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 대체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화장과 비슷하게 화장을 하려고 신경 쓴다.	.700
고유치=2.669 전체변량(%)=9.534 누적변량(%)=19.399 α 신뢰도=.788	

요인 3. 주관성	요인부하량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785
남들의 화장법에 좌우되기 보다는 나 나름대로의 화장법을 고수하는 편이다.	.768
화장은 곧 나의 개성표현이라고 생각한다.	.638
화장행위는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588
나는 화장할 때 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좋다.	.533
고유치=2.654 전체변량(%)=9.479 누적변량(%)=28.877 α 신뢰도=.752	

요인 4. 도구성	요인부하량
새로운 나를 연출하기 위해 화장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805
나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화장법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801
화장술로 때로는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다.	.641
화장은 변신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630
고유치=2.565 전체변량(%)=9.162 누적변량(%)=38.039 α 신뢰도=.784	

요인 5. 대인지향	요인부하량
화장은 대인지향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776
화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752
높은 사람들과 사귀는 데 품위 있는 화장이 도움 된다.	.538
나는 나의 화장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521
고유치=2.372 전체변량(%)=8.471 누적변량(%)=46.510 α 신뢰도=.733	

요인 6. 자존감	요인부하량
비싸도 유명상표의 화장품이 자존심을 세워준다고 본다.	.810
값싼 화장품을 바르면 내 신분이 낮아 보이는 것 같다.	.761
화장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482
고유치=2.072 전체변량(%)=7.400 누적변량(%)=53.910 α 신뢰도=.689	

요인 7. 과시성	요인부하량
모임에서 관심을 끌만한 화장이 좋다.	.755
눈에 띄는 화장을 하고 싶다.	.686
화장할 때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화장이 좋다.	.647
고유치=2.062 전체변량(%)=7.364 누적변량(%)=61.274 α 신뢰도=.691	

2) 성격

성격의 요인분석결과, 요인 1은 개방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113이고 전체변량은 14.089%였다. 요인 2은 신경증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1.990이고 전체변량은 13.266%였다. 요인 3은 성실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1.959이고 전체변량은 13.062%였다. 요인 4은 친화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1.916이고 전체변량은 12.771%였다. 요인 5는 외향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1.836이고 전체변량은 12.239%였다. 5개의 변인은 전체변량의 65.42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신뢰도는 .691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성격의 요인분석

요인 1. 개방성(Openness)	요인부하량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870
나는 독창적이며 새로운 생각을 잘 떠올리는 사람이다	.804
나는 활발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다	.692
고유치=2.113 전체변량(%)=14.089 누적변량(%)=14.089 α 신뢰도=.782	
요인 2. 신경증(Neuroticism)	요인부하량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817
나는 쉽게 짐을 지는 사람이다	.814
나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692
고유치=1.990 전체변량(%)=13.266 누적변량(%)=27.355 α 신뢰도=.699	
요인 3. 성실성(Conscientiousness)	요인부하량
나는 믿음만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807
나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다	.798
나는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651
고유치=1.959 전체변량(%)=13.062 누적변량(%)=40.417 α 신뢰도=.718	
요인 4. 친화성(Agreeableness)	요인부하량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며 이타적인 사람이다	.773
나는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이다	.767
나는 사려깊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사람이다	.712
고유치=1.916 전체변량(%)=12.771 누적변량(%)=53.188 α 신뢰도=.693	

요인 5. 외향성(Extraversion)	요인부하량
나는 수다스러운 사람이다	.818
나는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사람이다	.689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	-.749
고유치=1.836 전체변량(%)=12.239 누적변량(%)=65.428 α 신뢰도=.691	

: 역산처리 문항

3) 죽음태도

죽음태도는 요인분석 결과, 1개 문항을 제외한 24개 문항을 최종 요인 분석에 이용하였다.

요인 1은 접근적 수용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3.123이고 전체변량은 13.013%였다. 요인 2는 죽음회피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782이고 전체변량은 11.592%였다. 요인 3은 죽음의 공포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538이고 전체변량은 10.577%였다. 요인 4는 도피적 수용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498이고 전체변량은 10.408%였다. 요인 5는 중립적 수용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024이고 전체변량은 8.434%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는 .63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5개의 변인은 전체변량의 54.02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죽음태도의 요인분석

요인 1. 접근적 수용(Approach Acceptance)	요인부하량
죽음은 신과 영원한 축복과 결합하는 것이다	.787
죽음은 새롭고 영광된 삶을 기약하는 것이다	.760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위안을 주는 한 가지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다	.649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	.621
죽음은 절대 만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615
나는 죽으면 천당에 갈 것이라 믿는다.	.530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고대하고 있다.	.507
고유치=3.123 전체변량(%)=13.013 누적변량(%)=13.013 α 신뢰도=.757	
요인 2. 죽음회피(Death Avoidance)	요인부하량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고 한다.	.795
나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생각을 피한다	.786
죽음에 관한 생각이 들 때면 그것을 밀어내려고 노력한다.	.772
나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743
고유치=2.782 전체변량(%)=11.592 누적변량(%)=24.605 α 신뢰도=.776	
요인 3. 죽음의 공포(Fear of Death)	요인부하량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불안감이 높아진다.	.754
나는 죽음이 정말 두렵다	.698
죽음이 내가 아는 모든 것과의 마지막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두렵다	.766
죽음은 분명 무서운 경험일 것이다	.688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532
고유치=2.538 전체변량(%)=10.577 누적변량(%)=35.182 α 신뢰도=.725	
요인 4. 도피적 수용(Escape Acceptance)	요인부하량
나는 죽음이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771
죽음은 이 끔찍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구를 제공해준다	.743
나는 죽음이 인생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730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723
고유치=2.498 전체변량(%)=10.408 누적변량(%)=45.590 α 신뢰도=.728	
요인 5.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	요인부하량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732
나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다	.710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측면이다	.687
죽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633
고유치=2.024 전체변량(%)=8.434 누적변량(%)=54.024 α 신뢰도=.635	

4) 우울감

우울감 검사지는 기백석(1996), 정인과 외(1997), 엄인숙(2008)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형 표준화 노년 우울 검사를 토대로 측정된 것으로 전체 30개의 문항 중 각 요인별 3개의 문항만 선별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다. 이중 1개 문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고 전체 14개 문항을 최종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 1은 불행감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2.077이고 전체변량은 14.837%였다. 요인 2은 인지기능 저하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1.814이고 전체변량은 12.958%였다. 요인 3은 정서적 불안감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1.767이고 전체변량은 12.625%였다. 요인 4은 신체적 약화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1.678이고 전체변량은 11.986%였다. 요인 5는 사회적 활동 저하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1.462이고 전체변량은 10.443%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는 .54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5개의 변인은 전체변량의 62.84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우울감의 요인분석

요인 1. 불행감	요인부하량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807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784
#즐겁고 행복하다.	.771
고유치=2.077 전체변량(%)=14.837 누적변량(%)=14.837 α 신뢰도=.735	
요인 2. 인지기능 저하	요인부하량
#내 판단력은 여전히 좋다.	.792
#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748
#내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703
고유치=1.814 전체변량(%)=12.958 누적변량(%)=27.795 α 신뢰도=.648	
요인 3. 정서적 불안감	요인부하량
앞날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861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다.	.658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낀다.	.632
고유치=1.767 전체변량%=12.625 누적변량%=40.419 α 신뢰도=.682	

요인 4. 신체적 약화	요인부하량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예전보다 힘이 많이 든다.	.819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734
별일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진땀이 날 때가 많다.	.584
고유치=1.678 전체변량%=11.986 누적변량%=52.405 α 신뢰도=.604	

요인 5. 사회적 활동 저하	요인부하량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802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670
고유치=1.462 전체변량%=10.443 누적변량%=62.848 α 신뢰도=.545	

: 역산처리 문항

5) 화장이미지 선호

화장이미지 선호 검사는 Graham, Kligman(1984), 이화순(2002)의 검사를 수정 보완하여 3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문항을 합해서 요인분석 하였다.

요인 1은 호의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5.162이고 전체변량은 16.131%였다. 요인 2는 세련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4.188이고 전체변량은 13.087%였다. 요인 3은 개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3.779이고 전체변량은 11.811%였다. 요인 4는 품위성에 관한 내용이며, 고유치는 3.466이고 전체변량은 10.832%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는 .81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4개의 변인은 전체변량에서 51.861%의 설명력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화순(2002)의 연구에서 제시된 세련성, 품위성, 호의성, 개성의 변인이 나타난 요인분석 결과와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8> 화장이미지 선호의 요인분석

요인 1. 호의성		요인 2. 세련성		요인 3. 개성		요인 4. 품위성	
내용	요인 부하량	내용	요인 부하량	내용	요인 부하량	내용	요인 부하량
온화함	.767	밝음	.632	강인함	.767	부티남	.800
따뜻함	.721	여성적	.617	독특함	.751	돈보임	.683
부드러움	.710	아름다움	.605	대담함	.742	분위기있음	.648
편안함	.692	세련됨	.595	눈에띄임	.677	품위있음	.634
암전함	.666	멋있음	.569	강렬함	.609	매력적인	.482
성실함	.596	산뜻함	.557	화려함	.609	사랑스러움	.458
고상함	.557	단정함	.557	근엄함	.518		
예의바름	.512	화사함	.524	노숙함	.452		
자애로움	.432	젊어보임	.444				
고유치	5.162	고유치	4.188	고유치	3.779	고유치	3.466
전체변량(%)	16.131	전체변량(%)	13.087	전체변량(%)	11.811	전체변량(%)	10.832
누적변량(%)	16.131	누적변량(%)	29.218	누적변량(%)	41.029	누적변량(%)	51.861
α 신뢰도	.862	α 신뢰도	.880	α 신뢰도	.818	α 신뢰도	.815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연령에 따른 화장행동은 유행성($p<.001$), 도구성($p<.001$) 화장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행성은 80대가 가장 낮으며, 도구성 화장행동은 70대 이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수경, 강경자(2007)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화장을 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며, 안심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거주지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주관성($p<.05$), 대인지향($p<.05$), 자존심($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서울지역보다 기타지역 노년여성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유행성($p<.001$), 도구성($p<.001$), 대인지향($p<.01$), 과시성($p<.001$) 화장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행성, 대인지향, 자존심, 과시성, 전체 화장행동은 상그룹이 가장 높으며, 중하그룹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다. 도구성의 경우는 상중하그룹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는 이유종(2010), 조안진(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직업유무, 결혼여부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모든 화장행동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유행성($p<.01$), 동조성($p<.001$), 자존심($p<.01$) 화장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각 요인에 대한 인식들이 낮은 수준이었다.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노년여성에게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김명리, 김주덕(2005)의 연구에서 화장을 하면 활동성이 좋아지고 사회적 대인지향을 원만하게 이끌어준다

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다.

학력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유행성($p<.01$), 주관성($p<.001$), 대인지향($p<.001$), 자존심($p<.05$), 과시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각 요인의 인식이 다향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유행성의 경우는 학력이 고졸 이상이 경우 인식수준이 높으며, 주관성의 경우는 대졸이 가장 인식수준이 낮으며 고졸 이하인 경우 개성적인 경향이 강하고, 대인지향의 경우는 초등 졸 이하이거나 고졸의 경우 인식이 강하며, 중졸이나 대졸은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으며, 자존심은 대졸이 가장 높으며, 과시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유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수경(2007)의 연구에서 대학재학, 대졸 이상이 화장행동의 과시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소득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유행성($p<.001$), 주관성($p<.001$), 도구성($p<.001$), 대인지향($p<.001$), 자존심($p<.001$), 과시성($p<.01$) 화장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행성과 도구성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이며, 100만원 미만 집단이 가장 낮았다.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미만 집단이나 200만원 이상 집단보다 화장의 과시성을 중요시 하였다. 주관성, 대인지향, 전체적인 화장행동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자존심의 경우는 2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과시성의 경우는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높은 다소 다른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권현숙(2000)의 화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 중에서 월 소득이 301만원 이상이라고 대답한 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외모관리비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유행성($p<.001$), 도구성($p<.001$), 자존심($p<.001$), 과시성($p<.001$) 화장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행성, 도구성, 자존심, 과시성, 전체 화장행동의 경우 외모 관리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명희(2004)의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화장품 구매시 브랜드를 중시한다고 하였던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었다. 즉, 화장품 구매행동은 소득과 연관이 있으므로 소득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과 화장행동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형태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유행성($p<.001$), 동조성($p<.01$), 도구성($p<.01$), 자존심($p<.01$), 과시성($p<.001$) 화장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행성, 과시성의 경우는 일인세대이거나 기타의 경우 가장 인식수준이 낮고, 동조성의 경우는 기타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들은 모두 비교적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성, 자존심 화장행동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비교적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이 화장관심 중 외모지향과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임정미(2011)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표 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N=651)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유행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	차존심	과시성
전체			2.77	2.74	3.35	3.06	3.28	2.81	2.73
연령	60대	2.90 a	2.79	3.40	3.25 a	3.37	2.84	2.79	
	70대	2.78 a	2.71	3.33	2.95 b	3.21	2.79	2.76	
	80대	2.59 b	2.68	3.29	2.91 b	3.24	2.78	2.63	
	F	8.744***	1.183	1.511	12.063***	2.953	.306	2.402	
거주지	서울	2.77	2.73	3.34	3.07	3.27	2.79	2.73	
	기타지역	2.73	2.78	3.58	2.82	3.56	3.20	2.73	
	t	.210	-.292	-1.758*	1.175	-2.034*	-2.574**	.035	
사회 경제적 수준	상	3.02 a	2.80	3.42	3.33 a	3.46 a	3.02 a	2.99 a	
	중	2.77 b	2.67	3.38	3.09 b	3.25 b	2.74 b	2.70 b	
	하	2.63 b	2.77	3.26	2.87 c	3.20 b	2.75 b	2.62 b	
	F	11.249***	1.850	2.701	14.277***	5.535**	6.675**	9.951***	
직업 유무	유	2.75	2.74	3.41	3.08	3.35	2.76	2.65	
	무	2.78	2.73	3.33	3.06	3.26	2.82	2.75	
	t	.368	-.118	-1.067	-.249	-1.148	.701	1.230	
종교 유무	유	2.69	2.61	3.39	3.03	3.29	2.73	2.70	
	무	2.88	2.91	3.29	3.10	3.27	2.91	2.78	
	t	3.063**	5.156***	-1.987	.976	-.427	2.814**	1.331	
학력	초등졸 이하	2.63 b	2.78	3.41 a	3.01	3.36 a	2.78 b	2.64 bc	
	중졸	2.79 ab	2.64	3.29 a	3.08	3.09 b	2.69 b	2.61 c	
	고졸	2.89 a	2.69	3.42 a	3.13	3.38 a	2.82 b	2.83 b	
	대졸 이상	2.95 a	2.86	3.06 b	573.02	3.11 b	3.03 a	3.03 a	
	F	5.959**	1.841	6.367***	.860	6.333***	3.059*	6.843***	
월소득	100만원 미만	2.61 c	2.75	3.30 b	2.90 c	3.23 b	2.62 b	2.69 b	
	100~200만원 미만	2.85 ab	2.77	3.25 b	3.16 ab	3.19 b	2.77 b	2.92 a	
	200~300만원 미만	2.72 bc	2.67	3.23 b	2.99 bc	3.14 b	3.02 a	2.62 b	
	300만원 이상	3.00 a	2.73	3.67 a	3.29 a	3.64 a	2.96 a	2.69 b	
	F	8.106***	.512	11.883***	7.291***	13.717***	8.710***	4.243**	
결혼 여부	미혼	2.62	2.55	3.15	3.02	3.14	2.59	2.65	
	기혼	2.78	2.74	3.35	3.06	3.29	2.81	2.74	
	t	-.996	-1.268	-1.184	-.264	-.944	-1.389	-.519	
외모 관리비	10만원 미만	2.61 b	2.68	3.37	2.88 b	3.21	2.68 b	2.49 b	
	10~20만원 미만	2.93 a	2.75	3.31	3.30 a	3.34	2.87 ab	3.00 a	
	20~30만원 미만	2.98 a	2.82	3.39	3.17 a	3.41	3.11 a	2.97 a	
	30만원 이상	3.01 a	2.89	3.25	3.31 a	3.37	2.94 a	3.11 a	
	F	11.122***	1.598	.677	13.160***	2.571	7.594***	25.531***	
가족 형태	일인세대	2.50 b	2.72 a	3.44	2.93 bc	3.30	2.61 bc	2.51 b	
	부부세대	2.75 a	2.74 a	3.26	2.99 bc	3.19	2.91 a	2.85 a	
	배우자와 자녀	2.96 a	2.75 a	3.43	3.25 a	3.39	2.87 a	2.75 a	
	배우자와손자손녀	2.96 a	2.86 a	3.27	3.17 ab	3.31	2.85 ab	2.87 a	
	기타	2.50 b	2.23 b	3.41	2.80 c	3.11	2.57 c	2.40 b	
F	10.277***	4.531**	2.367	4.816**	2.114	4.142**	6.277***		

* $p < .05$ ** $p < .01$ *** $p < .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표 10>과 같다.

영정사진 선택특성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유행성($p<.01$), 주관성($p<.05$), 도구성($p<.05$), 자존심($p<.05$), 과시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행성은 일상적인 생활사진이나 신분증용 증명사진을 선택하는 여성이 중요시 하였으며, 주관성의 경우는 영정용 영정사진을 선택하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도구성과 자존심, 과시성은 신분증용 증명사진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영정사진 준비 의향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는 유행성($p<.01$), 도구성($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정사진을 준비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화장의 유행성과 도구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의 유행성과 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대상들은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N=651)

영정사진 특성		화장행동						
		유행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	자존심	과시성
전체		2.77	2.74	3.35	3.06	3.28	2.81	2.73
영정사진 선택 사항	일상적인 생활사진	2.94 a	2.66	3.22 b	3.08 ab	3.27	2.68 b	2.76 ab
	신분증용 증명사진	2.95 a	2.78	3.34 ab	3.28 a	3.20	3.01 a	2.96 a
	영정용 영정사진	2.67 b	2.74	3.40 a	2.99 b	3.31	2.82 ab	2.66 b
	기타 사진	2.89 ab	2.83	3.23 b	3.22 ab	3.17	2.70 b	2.89 ab
	<i>F</i>	5.804**	.739	2.868*	3.348*	.885	3.030*	3.708*
영정사진 준비 의향	그렇지 않다	2.96 a	2.68	3.36	3.22 a	3.23	2.80	2.87
	그저그렇다	2.86 a	2.71	3.25	3.14 ab	3.17	2.67	2.74
	그렇다	2.68 b	2.76	3.37	2.98 b	3.33	2.85	2.69
	<i>F</i>	7.578**	.654	1.456	5.366**	2.795	2.427	2.668

* $p<.05$ **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성격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표 11>과 같다.

연령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성실성($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실성은 연령이 낮은 60대가 가장 높았으며, 70대와 80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거주지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성실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서울지역보다는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여성들이 성실성이 더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개방성($p<.001$), 신경증($p<.01$), 외향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방성과 외향성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 상류층인 여성들이 하류층보다 높았으며, 신경증은 하류층이 가장 높았다. 외향성은 중, 상그룹이 높은 수준이었다. 직업 여부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신경증($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직업이 없는 여성들이 신경증이 더 높았다. 종교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성실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실성은 종교가 있는 노년여성들이 성실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친화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화성은 초등졸이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개방성($p<.001$), 신경증($p<.001$), 성실성($p<.001$), 친화성($p<.01$), 외향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은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노년여성들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신경증은 100~3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여성들이 소득이 높거나 소득이 낮은 여성보다 더 높았다. 친화성은 100~200만원, 200~300만원의 중간 소득을 가진 여성이 낮았으며, 300만원 이상 소득이 높은 여성과 100만원 미만 소득이 낮은 여성들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개방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혼인 여성들이 높았다.

외모관리비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성실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성실성은 외모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거나 30만원 이상인 노년여성들이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형태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개방성($p<.01$), 성실성($p<.001$), 외향성($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방성은 배우자와 손자손녀, 기타의 가족형태인 여성들이 가장 높았으며, 일인세대인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성실성은 부부세대인 경우 가장 낮았으며, 기타 세대인 경우 가장 높았다, 외향성은 일인세대인 경우 가장 낮았으며,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 기타 세대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현서(2011)의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성격 유형은 성별, 결혼상태, 종교, 연령, 학력, 직업, 경제 상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기혼자가 개방성이 높았고, 60대 연령이 70~80대 보다 종교가 있는 여성들이 성실성이 높았으며, 학력에서는 초등졸 이하의 노년여성들이 학력이 높은 여성보다 친화성이 높았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신경증이 높았으며,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성, 외향성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는 연령층이 높은 60대 이상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반면, 이현서의 연구는 10대에서 50대까지의 미용실을 이용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인한 차이로 생각된다.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성격의 차이

(N=651)

인구통계적 변인		성격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전체		3.22	2.75	3.45	3.37	3.12
연령	60대	3.20	2.68	3.57 a	3.38	3.15
	70대	3.24	2.82	3.37 b	3.32	3.12
	80대	3.22	2.76	3.36 b	3.41	3.08
	<i>F</i>	.110	1.682	5.463**	.790	.363
거주지	서울	3.21	2.75	3.42	3.38	3.11
	기타지역	3.47	2.80	4.06	3.12	3.30
	<i>t</i>	-1.575	-.346	-4.199***	1.771	-1.171
사회경제적 수준	상	3.38 a	2.63 b	3.55	3.40	3.31 a
	중	3.28 a	2.70 b	3.46	3.40	3.15 a
	하	3.05 b	2.88 a	3.37	3.32	2.96 b
	<i>F</i>	8.262***	5.107**	2.392	.889	8.814***
직업유무	유	3.24	2.58	3.58	3.43	3.20
	무	3.21	2.78	3.42	3.36	3.10
	<i>t</i>	-.330	2.362*	-1.998	-.945	-1.138
종교유무	유	3.22	2.75	3.56	3.40	3.09
	무	3.22	2.75	3.30	3.33	3.16
	<i>t</i>	.028	-.105	-4.089***	-1.221	1.045
학력	초등졸 이하	3.21	2.74	3.49	3.47 a	3.17
	중졸	3.19	2.66	3.37	3.35 ab	3.06
	고졸	3.21	2.73	3.46	3.31 ab	3.09
	대졸 이상	3.30	2.97	3.42	3.19 b	3.11
	<i>F</i>	.303	2.549	.648	3.791*	.690
월소득	100만원 미만	3.06 b	2.67 b	3.37 b	3.44 ab	3.00 b
	100~200만원 미만	3.22 b	2.91 a	3.38 b	3.29 bc	3.04 b
	200~300만원 미만	3.16 b	2.91 a	3.31 b	3.20 c	2.98 b
	300만원 이상	3.55 a	2.51 b	3.82 a	3.52 a	3.58 a
	<i>F</i>	9.545***	8.520***	12.645***	5.337**	19.172***
결혼여부	미혼	2.90	2.79	3.31	3.23	2.87
	기혼	3.23	2.75	3.45	3.37	3.13
	<i>t</i>	-1.990*	.503	-1.159	-.977	-1.607
외모관리비	10만원 미만	3.14	2.71	3.50 a	3.42	3.10
	10~20만원 미만	3.30	2.79	3.42 ab	3.28	3.11
	20~30만원 미만	3.30	2.78	3.24 b	3.30	3.16
	30만원 이상	3.34	2.82	3.55 a	3.40	3.18
	<i>F</i>	2.105	.490	2.829*	1.692	.231
가족형태	일인세대	3.07 b	2.77	3.33 bc	3.40	2.95 b
	부부세대	3.16 bc	2.78	3.28 c	3.30	3.07 ab
	배우자와 자녀	3.26 bc	2.64	3.54 b	3.40	3.22 a
	배우자와 손자손녀	3.36 ab	2.76	3.57 b	3.34	3.24 a
	기타	3.53 a	2.94	3.98 a	3.62	3.26 a
<i>F</i>	3.414**	1.291	8.354***	1.590	3.436**	

* $p < .05$ ** $p < .01$ *** $p < .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표 12>와 같다.

선호하는 영정사진 선택 사항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성실성($p<.05$), 외향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실성은 일상적인 생활사진이 나 영정용 영정사진을 선호하는 노년여성들이 높게 나타났다. 외향성은 신분증용 증명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선호하는 노년여성들이 높게 나타났다.

영정사진 준비 의향에 따른 성격의 차이는 친화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화성은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성격의 차이

(N=651)

영정사진 특성		성격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전체		3.22	2.75	3.45	3.37	3.12
영정사진 선택 사항	일상적인 생활사진	3.19	2.67	3.50 a	3.31	3.00 b
	신분증용 증명사진	3.15	2.88	3.22 b	3.25	3.25 a
	영정용 영정사진	3.23	2.75	3.48 a	3.43	3.16 ab
	기타 사진	3.29	2.77	3.35 ab	3.26	2.94 b
	<i>F</i>	.383	1.020	2.754*	2.114	2.684*
영정사진 준비 의향	그렇지 않다	3.15	2.68	3.33	3.21 b	3.15
	그저그렇다	3.11	2.68	3.49	3.37 ab	3.05
	그렇다	3.28	2.80	3.47	3.42 a	3.13
	<i>F</i>	2.548	1.516	1.854	4.207*	.715

* $p<.05$,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

60대 이상 노년여성의 죽음태도 중 죽음의 공포는 평균 3.00, 죽음회피는 평균 2.93, 접근적 수용은 평균 3.04, 중립적 수용은 평균 3.36, 도피적 수용은 평균 2.82으로 5점척도의 중앙점 3점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표 13>과 같다.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유무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모든 죽음태도 하위요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중립적 수용($p<.01$), 도피적 수용($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서울지역보다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여성들의 중립적 수용의도와 도피적 수용의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죽음의 회피($p<.05$), 접근적 수용($p<.001$), 중립적 수용($p<.001$), 도피적 수용($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의 3가지 측면의 죽음 수용의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형수, 김지민(2013), 김지현, 민경환(2010)의 연구에서 종교유무가 노년들의 죽음 수용적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

학력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죽음의 공포($p<.05$), 접근적 수용($p<.05$), 중립적 수용($p<.05$), 도피적 수용($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죽음의 공포, 도피적 수용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며, 대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접근적 수용의 경우는 고졸 이상인 경우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중립적 수용의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낮다고 보고한 이효경, 김광일(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소득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죽음의 공포($p<.001$), 접근적 수용($p<.01$), 중립적 수용($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죽음의 공포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립적 수용과 접근적 수용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산이 많은 노년일수록 죽음에 대하여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결과로 김지현, 민경환(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결혼여부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도피적 수용($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혼의 경우 도피적 수용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비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모든 죽음태도의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죽음의 공포($p<.01$), 죽음의 회피($p<.001$), 접근적 수용($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죽음 공포의 경우는 부부세대와 배우자와 손자녀 세대의 경우 가장 높으며, 죽음 회피의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의 세대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접근적 수용의 경우 기타 세대인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주(2013), 김지현, 민경환(2010)의 배우자 사별, 독거 여부 등과 같은 변인들이 노년기 적응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기 적응과 안녕감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표 1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

(N=651)

인구통계적 변인		죽음태도	죽음의 공포	죽음의 회피	접근적 수용	중립적 수용	도피적 수용
전체			3.00	2.93	3.04	3.36	2.82
연령	60대		3.07	2.97	3.06	3.37	2.85
	70대		2.97	2.95	3.05	3.31	2.76
	80대		2.93	2.87	3.02	3.39	2.85
	<i>F</i>		2.316	.917	.257	.706	1.155
거주지역	서울		2.99	2.93	3.03	3.34	2.81
	기타 지역		3.18	2.97	3.29	3.65	3.18
	<i>t</i>		-1.365	-.260	-1.567	-3.212**	-3.285**
사회경제적 수준	상		2.98	2.96	3.10	3.33	2.88
	중		2.96	2.90	3.06	3.41	2.76
	하		3.05	2.96	2.98	3.31	2.86
	<i>F</i>		1.066	.460	1.960	1.780	1.612
직업유무	유		2.99	2.93	3.04	3.43	2.77
	무		3.00	2.94	3.04	3.34	2.83
	<i>t</i>		.132	.137	.091	-1.292	.878
종교유무	유		2.96	2.87	3.18	3.45	2.89
	무		3.04	3.02	2.85	3.23	2.74
	<i>t</i>		1.373	2.445*	-7.235***	-4.447***	-2.709**
학력	초등졸 이하		2.90 b	2.90	2.97 b	3.43 a	2.79 b
	중졸		3.03 ab	2.97	3.02 b	3.29 ab	2.74 b
	고졸		3.06 ab	2.94	3.12 a	3.36 ab	2.84 b
	대졸 이상		3.11 a	2.99	3.13 a	3.21 b	3.02 a
	<i>F</i>		2.926*	.444	2.702*	2.994*	2.872*
소득	100만원 미만		2.82 b	2.84	2.97 b	3.40 ab	2.76
	100~200만원 미만		3.09 a	2.97	2.99 b	3.26 b	2.88
	200~300만원 미만		3.09 a	2.95	3.10 ab	3.28 b	2.88
	300만원 이상		3.10 a	3.04	3.19 a	3.48 a	2.81
	<i>F</i>		7.679***	2.252	4.477**	3.645*	1.283
결혼여부	미혼		2.99	3.07	3.02	3.38	3.16
	기혼		3.00	2.93	3.04	3.36	2.81
	<i>t</i>		-.036	.902	-.176	.142	2.458*
외모 관리비	10만원 미만		2.96	2.89	3.00	3.38	2.79
	10~20만원 미만		3.01	2.95	3.12	3.34	2.89
	20~30만원 미만		3.10	3.03	3.08	3.39	2.88
	30만원 이상		3.08	3.07	3.04	3.20	2.71
	<i>F</i>		1.227	1.430	1.725	1.221	1.329
가족형태	일인세대		2.85 b	2.83 b	2.96 b	3.54	2.83
	부부세대		3.11 a	2.99 bc	3.02 b	3.33	2.80
	배우자와 자녀		2.96 ab	2.88 b	3.07 b	3.29	2.81
	배우자와 손자녀		3.10 a	3.14 a	3.07 b	3.24	2.83
	기타		2.79 b	2.52 c	3.31 a	3.49	2.91
<i>F</i>		4.250**	5.975***	2.408*	4.743	.166	

* $p < .05$ ** $p < .01$ *** $p < .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표 14>와 같다.

영정사진 준비 의향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모든 죽음태도의 하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정사진 이미지 선택 사항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는 죽음의 회피 ($p<.05$), 중립적 수용($p<.01$), 도피적 수용($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죽음회피의 경우는 영정용 영정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낮았으며, 기타 사진을 선호하는 대상자들은 비교적 회피수준이 높았다. 또한 중립적 수용의 경우는 영정용 사진을 선호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신분증용 증명사진을 선호하는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도피적 수용의 경우는 신분증용 증명사진을 사용하거나 기타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높았으며, 일상적인 생활사진을 선호하는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

(N=651)

영정사진 특성		죽음태도				
		죽음의 공포	죽음의 회피	접근적수용	중립적수용	도피적수용
전체		3.00	2.93	3.04	3.36	2.82
영정사진 선택 사항	일상적인 생활사진	3.04	3.04 a	2.93	3.25 ab	2.71 b
	신분증용 증명사진	3.11	3.06 a	3.06	3.20 b	2.97 a
	영정용 영정사진	2.95	2.86 b	3.07	3.43 a	2.82 ab
	기타 사진	3.12	3.06 a	3.10	3.27 ab	2.96 a
	<i>F</i>	2.103	2.967*	1.995	4.695**	2.752*
영정사진 준비 의향	그렇지 않다	3.04	3.01	3.01	3.26	2.85
	그저그렇다	2.91	2.91	3.01	3.32	2.69
	그렇다	3.01	2.92	3.07	3.40	2.86
	<i>F</i>	1.435	.814	.631	2.587	2.759

* $p<.05$ **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우울감의 각 요인별 인식 수준은 불행감은 평균 2.54, 인지기능 저하는 평균 2.91, 정서적 불안감은 평균 2.96, 신체적 약화는 평균 3.08, 사회적 활동 저하는 평균 2.75이며, 전체적인 우울수준은 평균 2.85로 5점 척도의 중앙점인 3점보다 낮아 60세 이상의 노년여성들의 우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표 15>와 같다.

연령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사회적 활동 저하($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활동 저하의 경우는 8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체적인 우울감은 70대 이상이 높았다. 이는 이은주(2013) 연구에서 75세 이상 집단이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거주지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정서적 불안감($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타지역 거주 여성들이 서울지역 여성보다 정서적 불안감 수준이 낮은 경향이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인지기능 저하($p<.001$), 정서적 불안감($p<.01$), 신체적 약화($p<.001$), 사회적 활동 저하($p<.001$), 전체적인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각 하위 요인별 우울감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현주, 이현지(2005)의 연구에서 노년여성들이 지각하는 우울감은 경제적으로 상, 중, 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어, 상류층이 하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직업유무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신체적 약화($p<.001$), 사회적 활동 저하($p<.05$), 전체적인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 전체적인 우울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백지은(2010)의 직업이 없는 노년이 직업이 있는 노년들보다 우울감의 비율이 높게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종교유무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신체적 약화($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신체적 약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다. 이는 윤정선(2013), 박화옥, 손덕순(2005)의 연구에서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서 종교 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학력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모든 우울감의 하위변인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정선(2013), 고승덕, 손애리, 최윤신(2001)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은 노년들보다 낮은 노년들이 우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소득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불행감($p<.001$), 인지기능 저하($p<.001$), 정서적 불안감($p<.01$), 사회적 활동 저하($p<.001$), 전체적인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장 우울감 수준이 낮았으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활동 저하는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중간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주(2013), 박화옥, 손덕순(2005), 김윤정(1999)의 연구에서 수입이 적은 집단에서 우울감이 많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혼여부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인지기능 저하($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 인지기능 저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현주, 이현지(2005)의 연구에서 혼자 살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교육 및 경제수준이 높은 노년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노년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외모관리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신체적 약화($p<.01$)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 외모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체적 약화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인지기능 저하($p<.01$), 전체적인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지기능 저하는 기타 가족형태의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일인세대인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울감에 대해서는 일인세대가 가장 높았으며, 부부세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현주, 이현지(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노년여성들은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여성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이 많다고 하였다.

<표 1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N=651)

인구통계적 변인		우울감				
		불행감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감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
전체		2.54	2.91	2.96	3.08	2.75
연령	60대	2.49	2.88	2.88	3.03	2.65 b
	70대	2.55	2.93	3.00	3.16	2.77 ab
	80대	2.60	2.93	3.02	3.08	2.88 a
	<i>F</i>	1.461	.409	2.160	1.904	3.945*
거주지	서울	2.53	2.91	2.97	3.08	2.75
	기타 지역	2.69	2.77	2.65	3.26	2.87
	<i>t</i>	-1.133	1.035	2.038*	-1.236	-.747
사회경제적 수준	상	2.51	2.72 c	2.80 b	2.91 b	2.55 c
	중	2.49	2.88 b	2.92 b	3.03 b	2.72 b
	하	2.62	3.06 a	3.09 a	3.25 a	2.91 a
	<i>F</i>	2.380	10.446***	6.760**	10.723***	8.943***
직업유무	유	2.44	2.89	3.00	2.82	2.60
	무	2.56	2.91	2.95	3.14	2.78
	<i>t</i>	1.609	.292	-.646	4.199***	2.094*
종교유무	유	2.50	2.91	2.98	3.15	2.77
	무	2.58	2.91	2.92	3.00	2.73
	<i>t</i>	1.433	.047	-1.006	-2.492*	-.569
학력	초등졸 이하	2.55	2.90	2.93	3.04	2.74
	중졸	2.43	3.05	2.99	3.12	2.81
	고졸	2.54	2.83	2.92	3.13	2.67
	대졸 이상	2.67	2.88	3.07	3.07	2.90
	<i>F</i>	1.881	2.418	.927	.617	1.721
월소득	100만원 미만	2.56 a	2.94 a	2.96 a	3.08	2.67 b
	100~200만원 미만	2.65 a	3.03 a	3.06 a	3.07	2.93 a
	200~300만원 미만	2.67 a	2.97 a	3.04 a	3.20	3.03 a
	300만원 이상	2.22 b	2.62 b	2.72 b	2.99	2.39 b
	<i>F</i>	11.545***	9.271***	5.319**	1.666	17.485***
결혼여부	미혼	2.60	3.21	3.13	3.21	2.65
	기혼	2.54	2.89	2.95	3.08	2.76
	<i>t</i>	.467	2.147*	1.138	.835	-.624
외모관리비	10만원 미만	2.51	2.95	2.97	3.18 a	2.74
	10~20만원 미만	2.65	2.89	2.87	2.98 ab	2.68
	20~30만원 미만	2.49	2.80	2.98	2.92 b	2.83
	30만원 이상	2.47	2.88	3.11	3.05 ab	2.96
	<i>F</i>	1.912	1.038	1.458	4.582**	1.701
가족형태	일인세대	2.60	3.09 a	3.02	3.17	2.91
	부부세대	2.54	2.86 b	2.99	3.07	2.73
	배우자와 자녀	2.49	2.88 ab	2.83	3.01	2.71
	배우자와 손자손녀	2.47	2.89 ab	3.01	3.05	2.69
	기타	2.71	2.58 c	2.87	3.26	2.62
<i>F</i>	1.167	4.548**	1.532	1.315	1.804	

* $p < .05$ ** $p < .01$ *** $p < .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표 16>과 같다.

선호하는 영정사진 이미지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모든 우울감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정사진 준비 의향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신체적 약화($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영정사진 준비 의향이 없거나 영정사진 준비 의향이 있는 경우는 영정사진 준비에 대한 뚜렷한 의견이 없는 여성보다 신체적 약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N=651)

영정사진 선택 특성		우울감				
		불행감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감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
전체		2.54	2.91	2.96	3.08	2.75
영정사진 선택 사항	일상적인 생활사진	2.44	3.00	2.92	3.11	2.64
	신분증용 증명사진	2.62	2.88	2.82	3.04	2.75
	영정용 영정사진	2.55	2.89	2.99	3.09	2.77
	기타 사진	2.57	2.85	2.97	3.06	2.95
	<i>F</i>	1.247	.921	1.079	.140	1.704
영정사진 준비 의향	그렇지 않다	2.58	2.92	2.94	3.04 a	2.77
	그저그렇다	2.54	2.90	2.88	2.86 b	2.73
	그렇다	2.52	2.91	2.99	3.18 a	2.76
	<i>F</i>	.317	.021	1.023	9.117***	.082

*** $p<.0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6. 인구통계적 변인과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7>과 같다.

연령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호의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이 호의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화순(2002)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호의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1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본 연구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임에 나타난 차이라고 해석된다.

거주지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각 하위요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개성($p<.01$), 품위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중류층과 상류층에 비하여 개성을 중요시 하지 않았으며, 상류층은 중류나 하류층에 비하여 품위성을 더 선호하였다.

직업유무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세련성($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세련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종교유무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개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개성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학력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호의성($p<.001$), 세련성($p<.001$), 개성($p<.05$), 품위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호의

성, 세련성, 품위성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개성의 경우는 중졸이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이는 노선옥(2011)의 연구에서 품위성은 대학원졸업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소득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호의성($p<.001$), 세련성($p<.001$), 품위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호의성, 세련성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거나 3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식수준이 높으며, 품위성의 경우는 300만원이상인 경우 가장 높았다. 이는 노선옥(2011)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단정한, 품위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같은, 성숙한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결혼여부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호의성($p<.05$), 개성($p<.05$), 품위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 더욱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란숙, 이정민(2013)의 연구에서 귀여운, 품위있는 화장이미지의 선호가 높다고 하였고, 노선옥(2011)의 연구에서 기혼여성들이 단정한, 품위있는, 자연스러운 화장이미지의 선호가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외모관리비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호의성($p<.001$), 세련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인식수준이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호의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인세대인 경우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1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N=651)

인구통계적 변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호의성	세련성	개성	품위성
전체			3.56	3.58	2.81	3.39
연령	60대		3.52b	3.61	2.81	3.42
	70대		3.51b	3.56	2.80	3.39
	80대		3.66a	3.56	2.84	3.35
	<i>F</i>		3.658*	.385	.219	.579
거주지	서울		3.56	3.58	2.82	3.38
	기타 지역		3.46	3.53	2.60	3.50
	<i>t</i>		.840	.554	1.631	-1.079
사회 경제적 수준	상		3.55	3.59	2.89 a	3.47 a
	중		3.58	3.61	2.88 a	3.42 ab
	하		3.54	3.54	2.69 b	3.30 b
	<i>F</i>		.299	.709	6.156**	3.393*
직업 유무	유		3.61	3.75	2.80	3.36
	무		3.55	3.55	2.82	3.40
	<i>t</i>		-.942	-3.003**	.312	.574
종교 유무	유		3.53	3.56	2.76	3.38
	무		3.60	3.61	2.89	3.40
	<i>t</i>		1.436	.851	2.402*	.429
학력	초등졸 이하		3.74 a	3.71 a	2.90 a	3.48 a
	중졸		3.54 a	3.53 b	2.69 b	3.30 b
	고졸		3.45 a	3.58 ab	2.77 ab	3.37 ab
	대졸 이상		3.22 b	3.23 c	2.82 ab	3.25 b
	<i>F</i>		19.535***	11.362***	2.958*	3.662*
소득	100만원 미만		3.67 a	3.61 b	2.81	3.35 b
	100~200만원 미만		3.34 b	3.37 c	2.80	3.27 b
	200~300만원 미만		3.44 b	3.56 b	2.75	3.39 b
	300만원 이상		3.77 a	3.84 a	2.92	3.61 a
	<i>F</i>		17.694***	12.522***	1.267	6.917***
결혼 여부	미혼		3.39	3.39	2.52	3.12
	기혼		3.56	3.59	2.83	3.40
	<i>t</i>		-2.179*	-1.458	-2.178*	-2.079*
외모 관리비	10만원 미만		3.68 a	3.65 a	2.83	3.40
	10~20만원 미만		3.42 b	3.45 b	2.77	3.29
	20~30만원 미만		3.44 b	3.57 ab	2.88	3.51
	30만원 이상		3.37 b	3.55 ab	2.77	3.46
	<i>F</i>		10.702***	3.478*	.578	2.571
가족 형태	일인세대		3.69 a	3.61	2.69	3.27
	부부세대		3.50 b	3.58	2.89	3.44
	배우자와 자녀		3.52 b	3.63	2.80	3.43
	배우자와손자녀		3.54 b	3.51	2.85	3.40
	기타		3.56 b	3.48	2.82	3.38
<i>F</i>		2.535*	.803	1.779	1.597	

* $p < .05$ ** $p < .01$ *** $p < .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2)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영정사진 선택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세련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정용 영정사진을 선호하는 경우 가장 세련성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영정사진 준비 의향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품위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정사진을 준비할 의향이 없거나 준비할 의도가 있는 여성들은 영정사진 준비에 대하여 뚜렷한 의견이 없는 여성보다 품위성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표 18>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N=651)

영정사진 선택 특성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호의성	세련성	개성	품위성
전체		3.56	3.58	2.81	3.39
영정사진 선택 사항	일상적인생활사진	3.51	3.48 b	2.75	3.30
	신분증용증명사진	3.44	3.49 b	2.76	3.31
	영정용 영정사진	3.60	3.64 a	2.86	3.43
	기타 사진	3.49	3.52 ab	2.68	3.40
	<i>F</i>	2.110	2.632*	1.776	1.742
영정사진 준비의향	그렇지 않다	3.50	3.55	2.80	3.42 a
	그저그렇다	3.50	3.50	2.77	3.26 b
	그렇다	3.60	3.62	2.83	3.42 a
	<i>F</i>	2.234	1.713	.339	3.023*

* $p<.05$,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7. 인구통계적 변인과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9>와 같다.

연령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세련성($p<.05$), 개성($p<.01$), 품위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이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거주지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세련성($p<.05$), 품위성($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서울지역보다는 기타지역 노년 여성들의 세련성과 품위성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개성($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개성적인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직업유무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호의성($p<.05$), 세련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비교적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내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개성($p<.001$)과 품위성($p<.01$) 선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대졸 이상 여성보다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지 않았으며, 고졸 및 대졸 이상인 경우는 중졸 이하보다 품위성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호의성($p<.001$), 세련

성($p<.01$), 개성($p<.01$), 품위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호의성, 세련성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 선호도가 높았으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여성은 100만원 미만 집단보다 개성과 품위성을 더 선호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개성($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혼보다 미혼인 여성이 개성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외모관리비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차이는 개성($p<.001$), 품위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모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개성을 중요시 하지 않았고, 외모관리비가 20만원 이상인 여성은 2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품위를 더 중요시 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호의성($p<.05$), 세련성($p<.05$), 개성($p<.001$), 품위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호의성, 세련성의 경우 기타 세대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이었으며, 일인세대이거나 배우자 및 손자녀 세대인 경우 비교적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내었다. 개성의 경우는 일인세대인 경우 가장 선호가 낮았으며, 품위성의 경우는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세대의 경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표 1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N=651)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		호의성	세련성	개성	품위성
인구통계적 변인					
전체		3.36	3.30	2.46	3.02
연령	60대	3.40	3.35 a	2.51 a	3.08 a
	70대	3.38	3.34 a	2.51 a	3.05 a
	80대	3.29	3.19 b	2.31 b	2.89 b
	<i>F</i>	1.168	3.308*	7.069**	3.699*
거주지	서울	3.35	3.29	2.47	2.99
	기타지역	3.55	3.58	2.22	3.49
	<i>t</i>	-1.311	-2.109*	1.560	-3.446**
사회 경제적 수준	상	3.41	3.31	2.58 a	3.13
	중	3.34	3.29	2.47 ab	2.96
	하	3.36	3.30	2.36 b	3.01
	<i>F</i>	.346	.045	5.608**	2.259
직업 유무	유	3.52	3.44	2.52	3.09
	무	3.33	3.27	2.44	3.00
	<i>t</i>	-2.337*	-2.286*	-1.137	-1.113
종교 유무	유	3.40	3.31	2.46	3.04
	무	3.31	3.28	2.45	2.98
	<i>t</i>	-1.345	-.530	-.217	-.962
학력	초등졸 이하	3.40	3.31	2.35 b	2.89 b
	중졸	3.41	3.42	2.47 b	3.05 ab
	고졸	3.33	3.27	2.43 b	3.10 a
	대졸 이상	3.22	3.15	2.84 a	3.18 a
	<i>F</i>	1.389	2.606	13.685***	4.966**
소득	100만원 미만	3.35 b	3.24 b	2.36 b	2.83 b
	100~200만원 미만	3.22 b	3.25 b	2.57 a	3.07 a
	200~300만원 미만	3.26 b	3.29 b	2.43 ab	3.10 a
	300만원 이상	3.68 a	3.48 a	2.49 ab	3.18 a
	<i>F</i>	10.448***	3.862**	3.960**	7.536***
결혼 여부	미혼	3.42	3.29	2.08	3.08
	기혼	3.36	3.30	2.47	3.01
	<i>t</i>	.700	-.073	-3.161**	.731
외모 관리비	10만원 미만	3.38	3.27	2.33 b	2.87 b
	10~20만원 미만	3.33	3.26	2.54 a	3.06 b
	20~30만원 미만	3.38	3.49	2.64 ab	3.31 a
	30만원 이상	3.28	3.33	2.72 a	3.38 a
	<i>F</i>	.387	2.511	11.238***	13.572**
가족 형태	일인세대	3.51 a	3.31 a	2.27 c	2.88 b
	부부세대	3.29 ab	3.25 ab	2.52 ab	3.03 b
	배우자와 자녀	3.33 ab	3.28 ab	2.46 b	2.99 b
	배우자와손자녀	3.42 a	3.44 a	2.67 a	3.25 a
	기타	3.11 b	3.07 b	2.06 d	2.80 a
<i>F</i>	2.968*	2.514*	11.069***	5.160***	

* $p < .05$ ** $p < .01$ *** $p < .0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2) 영진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0>과 같다.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품위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타사진들을 선택하는 경우에 품위성을 가장 선호하였다.

영정사진 준비 의향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N=651)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 영정사진 선택 특성		호의성	세련성	개성	품위성
		호의성	세련성	개성	품위성
전체		3.36	3.30	2.46	3.02
영정사진 선택 사항	일상적인생활사진	3.30	3.27	2.52	2.98 b
	신분증용증명사진	3.31	3.29	2.47	3.00 b
	영정용 영정사진	3.41	3.30	2.42	2.99 b
	기타 사진	3.24	3.42	2.55	3.33 a
	<i>F</i>	1.201	.537	1.241	3.142*
영정사진 준비 의향	그렇지 않다	3.32	3.29	2.48	3.11
	그저그렇다	3.29	3.28	2.49	2.89
	그렇다	3.40	3.31	2.44	3.03
	<i>F</i>	1.186	.145	.491	2.805

* $p<.05$,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8.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t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호의성과 세련성 요인은 일반 화장이미지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p<.001$). 개성과 품위성 요인도 일반 화장이미지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는데($p<.001$), 특히 개성과 품위성에 대해서는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와 일반 화장이미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반 화장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일반 화장이미지보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얌전함과 단정함은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호의성의 항목별 순서를 비교할 때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서는 ‘편안함(3.7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온화함(3.67)’, ‘예의 바름(3.63)’, ‘부드러움(3.61)’ 순이고, ‘얌전함(3.38)’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경우 ‘편안함(3.4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드러움(3.45)’, ‘온화함(3.45)’, ‘따뜻함(3.40)’ 순이고, ‘고상함(3.18)’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세련성의 항목별 순서를 비교한 결과, 일반 화장이미지의 경우 ‘여성적(3.72)’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름다움(3.65)’, ‘밝음(3.64)’, ‘단정함(3.61)’의 순이며, ‘화사함(3.46)’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경우 ‘단정함(3.6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성적(3.54)’, ‘밝음(3.42)’의 순이고, ‘화사함(3.03)’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개성의 항목별 선호도 순서를 비교한 결과, 일반 화장이미지의 경우 ‘화려함(3.03)’, ‘근엄함(3.0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담함(2.82)’, ‘눈에

띄임(2.79), '강렬함(2.75)'의 순이고, '노숙함(2.68)'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경우 '근엄함(2.8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숙함(2.52)', '대담함(2.49)', '강인함(2.44)'의 순이고, '눈에 띄임(2.20)'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품위성의 항목별 선호도 순서를 비교한 결과, 일반 화장이미지의 경우 '분위기 있음(3.4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랑스러움(3.43)', '부티남(3.38)', '품위있음(3.37)'의 순이고, '돋보임(3.33)', '매력적임(3.33)'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경우 '품위있음(3.22)'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랑스러움(3.09)', '분위기 있음(3.06)'의 순이고, '돋보임(2.83)'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 화장이미지의 전체적인 항목별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편안함(3.7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적(3.72)', '온화함(3.67)', 아름다움(3.65)'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선호하지 않는 일반 화장이미지는 '노숙함(2.68)', '강인함(2.71)', '독특함(2.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전체적인 항목별 선호도 비교에서 '단정함(3.6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여성적(3.54)', '편안함(3.47)', 온화함(3.45)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선호하지 않는 영정사진 화장이미지는 '눈에 띄임(2.20)', '독특함(2.33)', '화려함(2.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여성은 영정사진 화장에서 단정한 이미지에 대한 추구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

	내용	일반 화장	영정사진 화장	차이 (일반-영정)	t
호의성	예의바름	3.63	3.39	.24	5.552***
	자애로움	3.50	3.35	.15	3.421**
	얌전함	3.38	3.30	.08	1.925
	따뜻함	3.58	3.40	.18	4.280***
	부드러움	3.61	3.45	.16	3.636***
	온화함	3.67	3.45	.22	4.916***
	편안함	3.73	3.47	.26	6.038***
	성실함	3.58	3.28	.30	6.564***
	고상함	3.35	3.18	.17	3.471**
전체	3.56	3.36	.19	7.311***	
세련성	멋있음	3.49	3.08	.42	8.520***
	화사함	3.46	3.03	.43	9.339***
	세련됨	3.56	3.13	.43	8.776***
	아름다움	3.65	3.27	.37	8.275***
	밝음	3.64	3.42	.22	4.639***
	산뜻함	3.52	3.29	.23	5.241***
	단정함	3.61	3.66	-.05	-1.178
	여성적	3.72	3.54	.18	4.062***
	젊어 보임	3.58	3.28	.29	6.269***
전체	3.58	3.30	.28	9.832***	
개성	노숙함	2.68	2.52	.16	3.352**
	강렬함	2.75	2.34	.41	8.831***
	화려함	3.03	2.47	.57	11.283***
	근엄함	3.03	2.85	.17	3.720***
	강인함	2.71	2.44	.27	6.147***
	독특함	2.71	2.33	.37	7.242***
	대담함	2.82	2.49	.33	7.084***
	눈에 띄임	2.79	2.20	.59	11.561***
전체	2.81	2.46	.36	12.527***	
품위성	부티남	3.38	2.95	.43	9.137***
	품위있음	3.37	3.22	.16	3.352**
	분위기있음	3.48	3.06	.43	8.021***
	돋보임	3.33	2.83	.51	10.361***
	사랑스러움	3.43	3.09	.34	7.023***
	매력적인	3.33	2.95	.38	8.414***
	전체	3.39	3.02	.37	10.835***

** $p < .01$ *** $p < .001$

9.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과 일반 화장이미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간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표 22>~<표 25>와 같다.

1) 화장행동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화장행동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일반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은 유행성($r=-.102, p<.01$), 과시성($r=-.139, p<.001$)과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주관성($r=.363, p<.001$), 대인지향($r=.198, p<.001$)은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일반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은 주관성($r=.414, p<.001$), 도구성($r=.102, p<.01$), 대인지향($r=.315, p<.001$), 자존심($r=.090, p<.05$)과는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개성과 대인지향와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 화장이미지 중 개성은 유행성($r=.249, p<.001$), 동조성($r=.232, p<.001$), 도구성($r=.140, p<.001$), 대인지향($r=.138, p<.001$), 자존심($r=.289, p<.001$), 과시성($r=.213, p<.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일반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은 유행성($r=.172, p<.001$), 동조성($r=.177, p<.001$), 주관성($r=.268, p<.001$), 도구성($r=.125, p<.01$), 대인지향($r=.245, p<.001$), 자존심($r=.271, p<.001$), 과시성($r=.113, p<.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수경, 강경자(2007)의 연구에서 도구성, 대인지향, 동조성, 주관성, 과시적인 화장행동이 강할수록 화장 후 대인지향이 좋아지고 매력적으로 보여 기분이나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화는 효과를 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22> 화장행동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화장행동 화장이미지		화장행동						
		유행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	자존심	과시성
일반 화장 이미지	호의성	-.102**	-.007	.363***	.019	.198***	-.065	-.139***
	세련성	-.035	-.001	.414***	.102**	.315***	.090*	-.057
	개성	.249***	.232***	.064	.140***	.138***	.289***	.213***
	품위성	.172***	.177***	.268***	.125**	.245***	.271***	.113**

* $p < .05$ ** $p < .01$ *** $p < .001$

2) 화장행동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화장행동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은 주관성($r = .310, p < .001$)과 대인지향($r = .191, p < .001$)과는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나 유행성($r = -.186, p < .001$), 동조성($r = -.125, p < .01$), 자존심($r = -.109, p < .01$), 과시성($r = -.216, p < .001$)과는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은 유행성($r = -.083, p < .05$), 과시성($r = -.147, p < .001$)과는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주관성($r = .248, p < .001$), 대인지향($r = .190, p < .001$)과는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개성은 유행성($r = .225, p < .001$), 동조성($r = .152, p < .001$), 도구성($r = .096, p < .05$), 자존심($r = .191, p < .001$), 과시성($r = .161, p < .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주관성($r = -.085, p < .05$)과는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은 유행성($r = .157, p < .001$), 동조성($r = .105, p < .01$), 대인지향($r = .143, p < .001$), 자존심($r = .292, p < .001$), 과시성($r = .102, p < .05$)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표 23> 화장행동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화장행동 화장이미지		유형성	동조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	자존심	과시성
		영정사진	호의성	-.186***	-.125**	.310***	.065	.191***
화장 이미지	세련성	-.083*	-.072	.248***	.053	.190***	.022	-.147***
	개성	.225***	.152***	-.085*	.096*	.058	.191***	.161***
	품위성	.157***	.105**	.064	.061	.143***	.292***	.102*

* $p < .05$ ** $p < .01$ *** $p < .001$

3) 성격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성격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신경증의 경우는 호의성($r = -.215, p < .001$), 세련성($r = -.186, p < .001$), 개성($r = -.095, p < .05$), 품위성($r = -.091, p < .05$)의 모든 일반 화장이미지와 부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호의성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의 경우는 개성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의성($r = .215, p < .001$), 세련성($r = .283, p < .001$), 품위성($r = .245, p < .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즉, 개인의 성격 중 신경증이 높아질수록 모든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도가 낮았으며, 개방성, 친화성, 외향성이 강해질수록 일반 화장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였다.

<표 24> 성격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일반 화장이미지		성격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일반화장 이미지	호의성	.168***	-.215***	.215***	.383***	.182***
	세련성	.200***	-.186***	.283***	.253***	.207***
	개성	.271***	-.095*	.028	.113**	.250***
	품위성	.298***	-.091*	.245***	.168***	.214***

* $p < .05$ ** $p < .01$ *** $p < .001$

4) 성격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성격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개방성의 경우는 호의성($r = .089$, $p < .05$), 세련성($r = .128$, $p < .01$), 개성($r = .139$, $p < .001$), 품위성($r = .115$, $p < .001$)의 모든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와 유의한 정의 상관성을 나타냈지만, 신경증은 호의성($r = -.168$, $p < .001$)과 비교적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품위성($r = .134$, $p < .01$)과는 비교적 낮은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성실성의 경우는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호의성($r = .167$, $p < .001$) 및 세련성($r = .195$, $p < .001$)과 정의 상관성을 보이며, 친화성의 경우는 품위성($r = -.090$, $p < .05$)과 비교적 낮은 부적 상관성을 가지며, 호의성($r = .262$, $p < .001$) 및 세련성($r = .172$, $p < .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외향성의 경우는 호의성($r = .085$, $p < .05$)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표 25> 성격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화장이미지 선호		성격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영정사진 화장	호의성	.089*	-.168***	.167***	.262***	.085*
	세련성	.128**	-.040	.195***	.172***	.057
	개성	.139***	.045	-.021	.023	.073
	품위성	.115***	.134**	.073	-.090*	.019

* $p < .05$ ** $p < .01$ *** $p < .001$

5) 죽음태도와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죽음태도와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일반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은 죽음의 접근적 수용($r = 0.99, p < .05$), 중립적 수용($r = .338, p < .001$)과 정의 상관성이 이었다. 일반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은 죽음의 중립적 수용($r = .358, p < .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고, 일반 화장이미지 중 개성은 죽음공포($r = .136, p < .001$), 죽음회피($r = .177, p < .001$)와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일반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은 죽음공포($r = .143, p < .001$), 죽음회피($r = .163, p < .001$), 접근적 수용($r = .111, p < .01$), 중립적 수용($r = .116, p < .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표 26> 죽음태도와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화장이미지		죽음태도				
		죽음공포	죽음회피	접근적 수용	중립적 수용	도피적수용
일반 화장 이미지	호의성	-.049	.016	.099*	.338***	.010
	세련성	.028	.071	.057	.358***	-.038
	개성	.136***	.177***	.015	.061	-.030
	품위성	.143***	.163***	.111**	.116**	.011

* $p < .05$ ** $p < .01$ *** $p < .001$

6) 죽음태도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죽음태도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은 죽음의 중립적 수용($r=.386, p<.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고,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은 죽음공포($r=.079, p<.05$), 죽음회피($r=.104, p<.01$), 중립적 수용($r=.234, p<.001$)과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도피적 수용($r=-.095, p<.05$)과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개성은 죽음공포($r=.159, p<.001$), 죽음회피($r=.220, p<.001$)와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은 죽음공포($r=.237, p<.001$), 죽음회피($r=.252, p<.001$)와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표 27> 죽음태도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죽음태도 화장이미지		죽음태도				
		죽음공포	죽음회피	접근적 수용	중립적 수용	도피적수용
영정사진 화장 이미지	호의성	-.039	-.008	.056	.386***	-.053
	세련성	.079*	.104**	-.031	.234***	-.095*
	개성	.159***	.220***	-.018	-.046	-.034
	품위성	.237***	.252***	-.010	-.042	-.014

* $p<.05$ ** $p<.01$ *** $p<.001$

7) 우울감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우울감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일반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은 불행감,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감,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일반 화장이미지 중 개성은 불행감($r=-.179, p<.001$), 인지기능 저하($r=-.230,$

$p < .001$), 정서적 불안감($r = -.096, p < .05$), 신체적 약화($r = -.224, p < .001$)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표 28> 우울감과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우울감 화장이미지		불행감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감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
일반 화장 이미지 선호	호의성	-.389***	-.188***	-.189***	-.160***	-.233***
	세련성	-.381***	-.290***	-.199***	-.166***	-.231***
	개성	-.179***	-.230***	-.096*	-.224***	-.054
	품위성	-.234***	-.301***	-.111**	-.206***	-.118**

* $p < .05$ ** $p < .01$ *** $p < .001$

8)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29>와 같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은 불행감($r = -.239, p < .001$), 인지기능 저하($r = -.109, p < .01$), 정서적 불안감($r = -.160, p < .001$), 사회적 활동 저하($r = -.279, p < .001$)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은 불행감($r = -.201, p < .001$), 인지기능 저하($r = -.092, p < .05$), 사회적 활동 저하($r = -.132, p < .01$)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개성은 정서적 불안감($r = .096, p < .05$)과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고, 신체적 약화($r = -.082, p < .05$)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은 정서적 불안감($r = .139, p < .001$)과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여성들은 정서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영정사진에서 개성과 품위성을 선호하며 정서적 불안감이 낮을수록 영정사진에서 호의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9> 우울감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우울감 화장이미지		불행감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감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
영정사진	호의성	-.239***	-.109**	-.160***	.007	-.279***
화장	세련성	-.201***	-.092*	-.002	.015	-.132**
이미지	개성	-.063	-.045	.096*	-.082*	.022
선호	품위성	.029	-.070	.139***	.061	.048

* $p < .05$ ** $p < .01$ *** $p < .001$

10.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 중 사회경제적 수준은 처음 조사한 점수를 역산하여 사용하였고, 거주지(서울지역=1, 기타지역=0), 직업유무(직업유=1, 직업무=0), 종교유무(종교유=1, 종교무=0), 결혼여부(결혼=1, 미혼=0), 가족형태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사용하였다. 가족형태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1)와 그렇지 않는 경우(0)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다중회귀분석은 단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3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호의성 38.7%, 세련성 38.4%, 개성 25.5%, 품위성 24.9%로 나타났다.

호의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beta=-.161, p<.001$), 종교가 있을수록($\beta=-.083, p<.05$) 일반 화장의 호의성 이미지 선호가 낮았다. 화장행동 중에서는 과시성($\beta=-.095, p<.01$), 도구성($\beta=-.124, p<.01$)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호의성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성($\beta=.153, p<.001$)이 높아질수록 호의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중에서는 친화성($\beta=.214, p<.001$)이 높을수록 호의성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태도 중에서는 독립적 수용($\beta=.195, p<.001$)이 강할수록 호의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우울감 중에서는 불행감($\beta=-.236, p<.001$), 신체적 약화($\beta=-.109, p<.01$), 활동 저하($\beta=-.068, p<.05$)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호의성 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40.422, p<.001$).

세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 학력($\beta=-.111, p<.01$)이

높아질수록 세련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며, 거주지($\beta = .075, p < .05$)가 서울일수록 세련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정사진 선택 특성은 세련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에서는 동조성($\beta = -.076, p < .05$), 도구성($\beta = -.121, p < .01$), 과시성($\beta = -.082, p < .05$)이 높아질수록 세련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며, 주관성($\beta = .123, p < .01$), 자존심($\beta = .194, p < .01$), 대인지향($\beta = .119, p < .01$)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세련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중에서는 성실성($\beta = .098, p < .01$)이 높을수록 세련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죽음태도 중에서는 독립적 수용($\beta = .288, p < .001$)이 강할수록 세련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가 높아지며, 접근적 수용($\beta = -.129, p < .001$)이 강할수록 세련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중에서는 불행감($\beta = -.245, p < .001$), 신체적 약화($\beta = -.112, p < .01$), 인지기능 저하($\beta = -.101, p < .01$)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세련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8.367, p < .001$).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beta = .113, p < .01$), 거주지가 서울($\beta = .080, p < .05$)인 경우일수록, 소득($\beta = .093, p < .05$)이 높을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외모관리비($\beta = -.096, p < .05$)가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개성적 이미지 선호가 낮아졌다. 화장행동 중 유행성($\beta = .154, p < .001$)과 자존심($\beta = .253, p < .001$)이 높아질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도구성($\beta = -.157, p < .001$)이 높을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중 개방성($\beta = .184, p < .001$)과 외향성($\beta = .121, p < .01$)이 높아질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성실성($\beta = -.129, p < .01$)이 높아질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태도

중 중립적 수용($\beta=.110, p<.01$)이 높아질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울감 중 신체적약화($\beta=-.098, p<.05$), 불행감($\beta=-.127, p<.01$), 인지기능 저하($\beta=-.083, p<.05$)가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5.557, p<.001$).

품위성에 대한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 학력($\beta=-.103, p<.01$)이 높을수록 품위성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며, 화장행동 중에서는 자존심($\beta=.222, p<.001$), 주관성($\beta=.142, p<.001$), 유행성($\beta=.090, p<.05$)이 높아질수록 품위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고, 도구성($\beta=-.162, p<.001$)이 높아질수록 품위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중 개방성($\beta=.173, p<.001$)이 높아질수록 품위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태도는 품위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은 불행감($\beta=-.138, p<.01$), 신체적 약화($\beta=-.101, p<.01$), 인지기능 저하($\beta=-.141, p<.001$)가 높아질수록 품위성에 대한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23.635, p<.001$).

<표 30>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5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호의성	인구통계적 변인	학력	-.074	-.161	-4.852***	R ² =.387 F=40.422***	
		종교(유)	-.101	-.083	-2.513*		
	화장행동	주관성	.133	.153	4.140***		
		과시성	-.072	-.095	-2.756**		
		도구성	-.091	-.124	-3.493**		
	성격	친화성	.176	.214	6.310***		
	죽음태도	중립적 수용	.181	.195	5.568***		
		우울감	불행감	-.200	-.236		-6.804***
			신체적 약화	-.088	-.109		-3.236**
	사회적 활동 저하	-.050	-.068	-2.014*			
세련성	인구통계적 변인	학력	-.056	-.111	-3.429**	R ² =.384 F=28.367***	
		거주지(서울)	.250	.075	2.317*		
	화장행동	자존심	.160	.194	5.002***		
		주관성	.118	.123	2.952**		
		과시성	-.069	-.082	-2.148*		
		대인지향	.107	.119	2.830**		
		도구성	-.099	-.121	-3.201**		
		동조성	-.066	-.076	-2.011*		
	성격	성실성	.084	.098	2.671**		
	죽음태도	중립적 수용	.295	.288	7.417***		
		접근적 수용	-.140	-.129	-3.533***		
	우울감	불행감	-.229	-.245	-6.971***		
		인지기능 저하	-.093	-.101	-2.822**		
신체적 약화		-.101	-.112	-3.331**			
개성	인구통계적 변인	거주지(서울)	.284	.080	2.237*	R ² =.255 F=15.557***	
		사회경제적 수준	.079	.113	2.745**		
		소득	.046	.093	2.249*		
		외모관리비	-.052	-.096	-2.509*		
	화장행동	자존심	.221	.253	6.176***		
		유행성	.139	.154	3.618***		
		도구성	-.135	-.157	-3.695***		
	성격	개방성	.154	.184	4.439***		
		성실성	-.116	-.129	-3.177**		
		의향성	.106	.121	3.064**		
	죽음태도	중립적 수용	.119	.110	2.969**		
우울감		신체적 약화	-.092	-.098	-2.576*		
	불행감	-.125	-.127	-3.283**			
	인지기능 저하	-.080	-.083	-2.102*			
품위성	인구통계적 변인	학력	-.053	-.103	-2.953**	R ² =.249 F=23.635***	
		화장행동	자존심	.184	.222		5.496***
	주관성		.136	.142	3.674***		
	도구성		-.132	-.162	-3.839***		
		유행성	.077	.090	2.114*		
	성격	개방성	.138	.173	4.578***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130	-.141	-3.680***		
		불행감	-.129	-.138	-3.553***		
신체적 약화		-.091	-.101	-2.759**			

* p<.05 ** p<.01 *** p<.001

11.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영향력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보면 호의성 31.9%, 세련성 19.4%, 개성 15.4%, 품위성 19.0%로 나타났다.

호의성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에서는 소득($\beta=.167, p<.001$)과 사회경제적 수준($\beta=.086, p<.05$)이 높을수록 영정사진의 호의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졌다. 화장행동 중에서는 과시성($\beta=-.127, p<.01$), 유행성($\beta=-.119, p<.01$)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의 주관성($\beta=.107, p<.01$)이 높아질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중에서는 친화성($\beta=.149, p<.001$)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며, 죽음태도 중에서는 독립적 수용($\beta=.322, p<.001$), 죽음회피($\beta=.074, p<.05$)가 강할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며, 접근적 수용($\beta=-.137, p<.001$)이 강해질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며, 우울감 중에서는 사회적 활동 저하($\beta=-.195, p<.001$)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영정사진 호의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30.042, p<.001$).

세련성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 외모관리비($\beta=.139, p<.001$)가 높아질수록 영정사진 세련성 이미지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화장행동 중에서는 과시성($\beta=-.175, p<.001$)이 높아질

수록 영정사진의 세련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장행동 중 과시성($\beta=.132, p<.01$)이 높을수록 영정사진의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중에서는 성실성($\beta=.112, p<.01$)이 높을수록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죽음태도 중에서는 죽음회피($\beta=.114, p<.01$), 독립적 수용($\beta=.235, p<.001$)이 강해질수록 영정사진의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접근적 수용($\beta=-.176, p<.001$)이 강할수록 영정사진의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중에서는 정서적 불안감($\beta=.115, p<.01$)이 높아질수록 세련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행감($\beta=-.105, p<.01$)과 사회적 활동저하($\beta=-.090, p<.05$)가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세련성 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5.4227, p<.001$).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 학력이 높고($\beta=.149, p<.001$), 거주지가 서울($\beta=.083, p<.05$)인 경우, 외모관리비($\beta=.122, p<.01$)가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졌다. 화장행동 중 유행성($\beta=.124, p<.01$)이 높아질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성격 중 개방성($\beta=.111, p<.01$)이 높아질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beta=.153, p<.001$)가 높을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도피적 수용($\beta=-.101, p<.01$)이 높아질수록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중 정서적 불안감($\beta=.095, p<.05$)이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개성적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졌다($F=14.663, p<.001$).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중 소득($\beta=.091, p<.05$)과 외모관리비가 높을수록($\beta=.173, p<.001$) 영정사진의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거주지가 서울일수록($\beta=-.088, p<.05$)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에서는 자존심($\beta=.194, p<.001$)이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

가 높아지며, 성격은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beta=.176, p<.001$)가 높아질수록 영정사진의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며, 도피적 수용($\beta=-.106, p<.001$)이 높아질수록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울감 중에서 신체적 약화($\beta=.112, p<.01$)가 높을수록 품위성 화장이미지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20.382, p<.001$).

<표 31>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5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호의성	인구통계적변인	소득	.090	.167	4.340***	R ² =.319 F=30.042***	
		사회경제적 수준	.065	.086	2.276*		
	화장행동	유행성	-.116	-.119	-2.924**		
		과시성	-.122	-.127	-3.187**		
	성격	주관성	.117	.107	2.791**		
		친화성	.155	.149	4.236***		
	죽음태도	죽음회피	.074	.074	2.120*		
		접근적 수용	-.171	-.137	-3.608***		
		중립적 수용	.378	.322	8.079***		
	우울감	사회적 활동 저하	-.180	-.195	-5.711***		
세련성	인구통계적 변인	외모관리비	.103	.139	3.752***	R ² =.194 F=15.4227** *	
	화장행동	과시성	-.152	-.175	-4.494***		
		주관성	.132	.132	3.043**		
	성격	성실성	.099	.112	2.774**		
		죽음태도	중립적 수용	.249	.235		5.420***
			접근적 수용	-.199	-.176		-4.271***
	우울감	죽음회피	.114	.125	3.363**		
		정서적 불안감	.101	.115	2.777**		
		불행감	-.102	-.105	-2.668**		
		사회적 활동 저하	-.075	-.090	-2.229*		
개성	인구통계적 변인	학력	.071	.149	3.781***	R ² =.154 F=14.663***	
		거주지(서울)	.262	.083	2.265*		
		외모관리비	.081	.122	3.071**		
	화장행동	유행성	.099	.124	3.098**		
		성격	개방성	.082	.111		2.898**
	죽음태도	죽음회피	.125	.153	3.823***		
		도피적 수용	-.087	-.101	-2.676**		
우울감	정서적 불안감	.076	.095	2.463*			
품위성	인구통계적 변인	거주지(서울)	-.327	-.088	-2.399*	R ² =.190 F=20.382***	
		외모관리비	.136	.173	4.554***		
		소득	.048	.091	2.372*		
	화장행동	자존심	.178	.194	4.845***		
		죽음태도	도피적 수용	-.109	-.106		-2.884**
	우울감	죽음회피	.171	.176	4.458***		
	신체적 약화	.111	.112	3.096**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인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과 인구통계적 변인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대상은 60~80대 노년여성 651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여성의 화장행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여성의 화장행동은 평균 2.96으로 5점 척도의 중앙점인 3점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성, 대인지향, 도구성은 높았으나, 자존심, 유행성, 동조성, 과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60대가 70~80대보다 유행성과 도구성을 더 중요시 하며, 거주지에 따른 차이에서 주관성, 대인지향, 자존심은 서울지역 여성들이 기타지역보다 낮은 편이었다. 도구성, 대인지향, 자존심, 과시성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상류층이 가장 중요시 하였다. 종교가 있는 노년여성은 유행성, 동조성, 자존심이 높았으며, 유행성, 자존심, 과시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더 중요시 하였으나, 주관성, 대인지향은 학력이 낮은 여성들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소득이 많을수록 유행성, 주관성, 도구성, 대인지향, 자존심이 높았으나 과시성은 소득이 중간 수준인 여성들이 더 높았다. 외모관리비가 많을수록 유행성, 도구성, 자존심, 과시성이 높았으며, 가족형태가 일인세대보다는 부부, 자녀,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유

행성, 동조성, 도구성, 자존심, 과시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직업유무,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모든 화장행동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유행성은 영정사진을 증명사진이나 생활사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높았으며, 주관성은 영정용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높았다. 도구성, 자존심, 과시성은 영정사진을 증명사진으로 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 높은 수준이었고, 유행성과 도구성은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노년여성들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둘째, 노년여성의 성격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여성의 성격은 성실성이 가장 강하며, 다음으로 친화성, 개방성, 외향성 순이며, 신경증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성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실성은 연령이 60대인 여성이 70대와 80대보다 더 높았으며, 기타지역 여성들이 서울지역보다, 종교를 가진 여성들이 종교가 없는 여성보다 성실성이 더 높았다. 개방성과 외향성은 중·상류층이 하류층보다 높았고, 신경증은 하류층이 가장 높았다. 신경증의 경우는 직업이 없는 여성들이 더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는 성실성이 높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친화성이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의 성격이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신경증의 경우는 소득이 중간수준인 경우 가장 높았다. 외모관리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성실성이 높았으며, 배우자와 함께 기거하는 경우 비교적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이 높은 경향이었다.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성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상적인 자신의 생활사진이나 영정용으로 별도의 영정사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성실성이 높았으며, 신분증용 증명사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외향적

성향이 높았다. 또한 자신의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두고자 하는 여성들은 친화적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여성의 죽음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여성의 죽음태도는 중립적 수용이 가장 강하며, 죽음회피나 도피적 수용은 비교적 낮아서 노년여성들은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여부, 외모관리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서울지역보다 기타지역 거주 여성들이 중립적 수용과 도피적 수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있는 경우 죽음회피가 낮았으며, 접근적 수용, 중립적 수용, 도피적 수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 접근적 수용, 도피적 수용은 높았으며, 중립적 수용은 낮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죽음의 공포와 접근적 수용, 중립적 수용이 높아졌다.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죽음태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영정용 영정사진을 선호하는 경우는 죽음회피 경향이 약하며, 중립적 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분증용 증명사진이나 기타 사진으로 자신의 영정사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죽음의 도피적 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년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여성의 우울감은 신체적 약화가 가장 높았으며, 기타 불행감, 인지 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감, 사회적 활동 저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우울감은 낮은 수준이었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

록 사회적 활동 저하가 높아지며, 서울지역 여성들이 정서적 불안감이 높았으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인지기능 저하, 정서불안감,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가 낮았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 신체적 약화와 사회적 활동 저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있는 경우 신체적 약화가 높았으며, 월소득이 높을수록 불안감,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감, 사회적 활동 저하가 낮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인지기능의 저하가 높았다. 또한 외모관리비가 적을수록 신체적 약화가 높았으며, 일인세대인 경우 인지기능 저하 수준이 높았다.

영정사진 선택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영정준비 의향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 신체적 약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년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여성의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요인 중에서 개성의 선호도는 매우 낮았으며,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 선호는 높은 수준이었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호의성을 선호하며,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성과 품위성을 선호하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일반 화장이미지의 모든 요인을 선호하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을 선호하거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외모관리비가 적을수록 호의성과 세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인세대인 경우는 호의성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 호의성, 개성, 품위성을 선호하며, 종교가 없는 경우 개성을 선호하며, 직업이 있는 경우 세련성을 선호하였다.

여섯째, 노년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여성의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 요인 중에서 개성 선호도는 매우 낮았으며, 호의성을 가장 선호하였고, 세련성, 품위성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세련성, 개성, 품위성을 선호하였다. 기타지역 거주 여성들이 세련성과 품위성을 선호하였으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개성을 선호하였다. 직업이 있는 여성들이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호의성과 세련성을 선호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개성과 품위성을 선호하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호의성, 세련성, 개성, 품위성을 선호하였고, 기혼자들이 미혼여성보다 개성을 선호하였으며, 외모관리비가 많을수록 개성과 품위성을 선호하였다.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개성과 품위성을 매우 선호하였고, 일인세대의 경우 호의성과 세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곱째, 노년여성의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차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개성,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 요인의 선호는 일반 화장이미지의 각 요인보다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일반 화장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 화장이미지보다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얌전함과 단정함은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 화장이미지의 항목별 선호도 순서를 조사한 결과, 편안함, 여성적, 온화함, 아름다움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영정 사진 화장이미지의 항목별 선호도 조사에서는 단정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여성적, 편안함, 온화함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여덟째, 노년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의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학력이 높고 종교가 있으며 화장행동 중 과시성, 도구성을 선호하는 성향, 우울감 중 불행감, 신체적 약화, 사회적 활동 저하의 경향이 높을수록 일반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화장행동 중 주관성, 성격중 친화성, 죽음태도 중 중립적 수용도가 높을수록 일반 화장이미지의 호의성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련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학력, 화장행동의 과시성, 도구성, 동조성을 선호하는 성향, 죽음태도 중 접근적 수용, 우울감 중 불행감, 인지능력저하, 신체적 약화의 경향이 높을수록 일반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성격 중 성실성, 화장행동 중 자존심, 주관성, 대인지향, 죽음태도 중 중립적 수용도가 높을수록 일반 화장이미지의 세련성을 중요시 하였다.

개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외모관리, 성격 중 성실성, 화장행동 중 도구성을 선호하는 성향, 우울감 중 신체적 약화, 불행감, 인지능력저하의 경향이 강할수록 일반 화장이미지 중 개성을 선호하지 않았다.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사회경제적 수준과 소득이 높고 성격 중 개방성, 외향성이 높으며, 화장행동 중 자존심과 유행성이 높고, 죽음태도 중 중립적 수용도가 높을수록 일반 화장이미지의 개성을 중요시 하였다.

품위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학력, 화장행동 중 도구성, 우울감 중 인지능력 저하, 불행감, 신체적 약화가 강할수록 일반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을 선호하지 않았다. 성격 중 개방성, 화장행동 중 자존심, 개성, 유행성이 높을수록 일반 화장이미지의 품위성을 중요시 하였다.

아홉째, 노년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행동, 성격, 죽음태도, 우울감이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의성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화장행동 중 유행성, 과시성, 죽음태도 중 접근적 수용, 우울감 중 사회적 활동 저하 경향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호의성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소득, 사회경제적 수준, 성격 중 친화성, 화장행동 중 주관성,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 독립적 수용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호의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련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화장행동 중 과시성, 죽음태도 중 접근적 수용, 우울감 중 불행감, 사회적 활동 저하의 경향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세련성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외모관리, 성격 중 성실성, 화장행동 중 주관성, 죽음태도 중 독립적 수용, 죽음회피, 우울감 중 정서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세련성을 더 선호하였다.

개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죽음태도 중 도피적 수용의 경향이 강할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개성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학력, 외모관리,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성격 중 개방성, 화장행동 중 유행성,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 우울감 중 정서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개성을 선호 하는 경향이 높았다.

품위성 화장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서울지역에 거주하거나, 죽음태도 중 도피적 수용도가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중 품위성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외모관리, 소득, 화장행동 중 자존심, 죽음태도 중 죽음회피, 우울감 중 신체적 약화가 높을수록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품위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노년대학, 노년정, 노년복지관을 다니는 노년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노년여성 전체에 적용하여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노년기의 노화 과정과 적응 정도에 따른 개인차가 있으며, 설문지를 사용하여 단기간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영정사진 화장이미지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년여성에게는 형용사를 선택하는 부분이 어려웠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넷째, 현대에 들어서 화장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의미 있게 행해지고 있으며, 영정사진 이미지 또한 노년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년 남성에게도 활용될 것으로 본다. 이에 노년여성과 노년남성의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조사가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여섯째, 화장이미지를 이미지맵으로 하여 이미지에 맞는 화장을 노년여성들에게 제시하여 선호도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명주 (2007). 인상 교정을 위한 메이크업 기법에 관한 연구. *패션과 니트*, 5(1), pp.9~16.
- 고경숙 (2012). 미용전공 학생들의 성격유형별 외모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 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3(4), pp.225~242.
- 고승덕 (1995).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승덕, 손애리, 최윤신 (2001). 노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6(1), pp.3~15.
- 고영일 (2011). *대한민국의 사진을 말하다*. 경기도 파주 : 한울. p.393.
- 고영일, 권진희, 최인진, 한수(1992). *인상사진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사진문화원. p.14.
- 권현숙 (2000). 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백석 (2004). 노년우울증. *BioWave*, 6(22), pp.1~17.
- 기백석 (1996). 한국판 노년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회지*, 35(2), pp.198~307.
- 김경미 (2000). 증명사진을 통해서 본 초상사진 특성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2). *서양 상장례 의식 및 복식에 관한 연구 : 고대에서 근대까지*.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범, 차영란(2006), 여성의 화장을 통한 미와 자기개념의 사회문화적 의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1(1), pp.107~123.
- 김도훈 (2004). 노년우울증. *노년정신의학*, 8, pp.90~95.
- 김명리, 김주덕 (2005). 화장행동이 갖는 심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화장품학회지*, 13(1), pp.127~134.
- 김미령 (2002). 스트레스이론의 비교 및 노년의 역할변화 연구에의 적용, *한국노년학*, 22(2). pp.41~60.
- 김미혜 (2010). 장례메이크업의 적용방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0(12), pp.223~234.
- 김민제 (2011). 20세기 후반 한국 여성의 화장(Make-up) 문화와 이미지 연구 :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진, 한명숙 (1998).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1), pp.84~93.
- 김윤정 (1999). 사회적지지 관점으로 본 가족부양이 노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화 (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박혜원(2008). 1970년대 한국여성의 사회적 이미지와 메이크업 특성연구. *패션비즈니스*, 12(4), pp.99~113.
- 김양하, 김기범, 차영란(2007). 화장의 자의식적 특성 분석과 화장마음의 사회인지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2(2), pp.213~229.
- 김정옥 (2008).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경 (2006). 조직구성원의 성격유형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현 (2013). 노년들의 여가 참여특성에 따른 우울감, 사회적응, 여가만

- 죽,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8).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민경환 (2010).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4(1), pp. 11~27.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pp.47~65.
- 김향숙, 오정숙 (2007). 고등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및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5(2), pp.149~158.
- 김현희 (2010). 얼굴이미지와 화장품 브랜드 개성 지각이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수, 김지민 (2013). 노년의 종교성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및 죽음태도 차이. *가족과 상담*, 3(1), pp.79~92.
- 김혜경 (2010). *FASHION TREND AND IMAGE*. 경기 : (주)교문사. pp.2~184.
- 김혜룡, 김정자 (2013). Big5성격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6(6), p.1458.
- 김희숙 (1998).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 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민, 이정은 (2012). 노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년복지연구*, 57(-), pp.85~112.
- 노선옥 (2011). 대인지향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현주, 이현지 (2005). 여성 노년이 지각하는 통제감이 우울감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년복지연구*, 27(-), pp.255~277.

- 노희영, 김용선, 이정민, 홍승욱 (2009). *실용 메이크업*. 경기 파주 : 광문각. pp.11~12.
- 두산세계대백과 (2001)-*ENCYBER DELUXE*. 서울 : 두산
- 문남숙, 남기민 (2008), 노년의 죽음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한국노년학*, 28(4), pp.1227~1248.
- 박명옥, 최배영 (2004), *테마가 있는 예절 이야기*. 서울 : (주)새로운 사람들, p.192.
- 박선희 (2008). MBTI와 여성의 화장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3), pp.196~203.
- 박숙현 (2011). 성격 유형에 따른 외모 연출 요인 선호도 비교.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4), pp.125~142.
- 박은아 (2003).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 보여주기의 미학. *한국심리학회지*, 4(2), pp.105~127.
- 박은정, 정명선 (2010).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8(4). pp.717~730.
- 박주석 (1998). *박주석의 사진이야기*. 서울 : 눈빛. pp.50~54.
- 박화옥, 손덕순 (2005). 노년의 우울감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46. pp.1~14.
- 백경진, 김미영 (2004). 화장행동과 영향 변인 연구 : 의복관여도, 연령, 얼굴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pp.892~903.
- 백경진, 김미경 (2004). 화장에 관한 기존연구 유형의 분석. *복식문화연구*, 12(1), pp.182~198.
- 백지은 (2010). 노년의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지각 안녕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20(2), pp.137~173.
- 서란숙 (2013). 추구이미지에 따른 화장추구혜택 및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9(4), pp.621~633.

- 서석희, 박애선 (2007).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년의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9(1), pp.107~130.
- 서은혜 (2012). 자기애성형, 신체 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덕순 (2005). 노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양민, 유경 (2011). 죽음준비교육이 노년의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년복지연구*, 54, pp.111~134.
- 심혜숙, 이숙미 (1996). 심리기능과 성격장애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3(1), pp.1~15.
- 안상성 (1998). *초상화란 무엇인가?*. 서울: 학문사. pp.56~57.
- 양진희외 (2011). *Make up Design*. 경기: 광문각. p.13.
- 엄인숙 (2008).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중년과 노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인경, 김미숙 (2004). 성격 유형 및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털 코디네이션 연구. *복식문화연구*, 12(6), pp.1045~1059.
- 오세근, 조준, 김영희, 최정민 (2012). 노년의 우울감과 죽음불안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2(2), pp.243~254.
- 원정제 (2009). 미용복지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노년의 심리 변화 연구 : 요구도, 자아존중감, 우울감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정선 (2013). 노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률 (2005). *철학으로 읽어보는 사진예술*. 서울: 사진마실. pp.146~150
- 이명희 (2004). 여성의 자아개념이 화장품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복식문화연구*, 12(4), pp.614~627.
- 이성욱, 신지현 (2000). 토탈 코디네이션을 위한 유행트렌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6(1), pp.113~147.
- 이연희, 양취경 (200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분색채화장이미지 지각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3,4), pp.515~526.
- 이영순 (2010). *노년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 김태현 (1999). 단독가구 노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3), pp.79~93.
- 이유종 (2010). *노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매력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정 (2005). *크리스찬 디올 패션과 광고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실 (2011). 신체매력 지각이 건강증진 행동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6), pp.47~56.
- 이은주 (2013). *노년의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적지지. 우울감 및 죽음불안의 구조적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진, 김정옥 (2003). 노년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pp.45~60.
-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순, 황춘섭 (200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52(8), pp.137~149.
- 이현서 (2011). *MBTI 성격유형별 외모관리와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

관심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정, 김미영 (2006). 의복추구 이미지 집단에 따른 화장추구 이미지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30(4), pp.655~661.
- 이효경, 김광일 (1985).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신경정신의학*, 24(3), pp.390~404.
- 임미연 (2005). 화장행동과 헤어칼라 및 자의식이 사회 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2), pp.121~135.
- 임정미 (2011). 노년기 여성의 화장관심과 화장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미용학회지*, 7(2), pp.189~196.
- 장미영 (2012). *영정사진 찍는날 -문순태 대나무꽃이 피다-*. 연린전북, 154, pp.60~64.
- 전연숙, 김향숙 (2008). 건강증진행위, 피부건강관리 및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4(3), pp.985~991.
- 정동호 외 (2004). *철학, 죽음을 말한다*. 서울 : 산해, pp. 234~235.
- 정운길 (2001). *패션전문자료사전*. 사진연구사. p.1219.
- 정인파, 곽동일, 조숙행, 이현수 (1997). 한국형 노년우울검사 표준화 연구. *노년정신의학*, 1(1), pp.61~72
- 전민조 (2007). *사진이야기*. 서울 : 눈빛, pp.40~41.
- 조유진 (2014). *성별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화장색채 선호도 비교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우, 임현우, 조선진, 방명희 (2008). 성인 남녀의 우울감 특징과 전문적 도움추구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3(3), pp.283~297.
- 진동선 (2003). *영화보다 재미있는 사진 이야기*. 서울: 푸른세상, p.36.
- 정연욱 (2003). *Moving myth: 사진론*.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안진 (2010).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

- 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수영 (2013). 성격 유형론을 활용한 의류소비태도 척도의 개발 : 에니어그램(Enneagram)수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수경 (2007).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수경 (2007). 성인여성의 인구 통계적 변인과 심리적 특성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7(8), pp.60~74.
- 최수경 (2007). 여성의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과 화장후 심리적 기대효과와의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13(2), pp.620~628.
- 최수경, 강경자 (2007). 여성의 화장행동이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3(1), pp.155~162.
- 최성재, 장인협 (1987). *노년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p.700.
- 최준식 (2013). *죽음학개론*. 서울 : 모시는 사람들, p.25.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5). *MBTI 전문자격교육 자료집*.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한명숙, 선정희 (2001). 웨딩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7(2), pp.73~85.
- 한미정 (2001).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보현 (2009). 이미지 상승 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상미 (2012). 긍정심리치료가 노년들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순, 오은정 (200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색조화장 표현도와 색조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7), pp.85~98.

홍숙자 (1992). *한국 거주노년과 재미교포 노년의 생활만족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역서>

Beaumont, N. (1992). 정진국 역. *사진의 역사*. 서울 : 열화당. p.9.

Gombrich, E. H. (1977). 백승길, 이종승 역. *서울미술사*. 서울 : 애경,
p.124.

Jean, L. D. (1999). 박주석 역. *사진 예술의 역사*. 서울 : 미진사, p.226.

Eliade, M. (1998). 이은봉 역. *성파속*. 경기 : 한길사, p.24.

<국외문헌>

Aapo, H., Jarmo, L., & Patrick, O. H. (2009). *Natural Image statistics : A probabilistic approach to early computational vision*, London, New york : Springer Dordrecht heidelberg.

Atchley, R. (1994). *Social Forces & Aging. California* : Wadsworth Publishing co.

Bonner, S. (1972). *The classic image : European history and manufacture of the lyre guitar, 850-1840*. Bios de boulogne, University of california.

Brown, C., Virginia, C. S., & Davis, F. A. (2010). *Occupational Therpy in mental helath : A Vision for participation*.

Magai, C., Susan, H., & Fadden, M. (1996). *Handbook of Emotion Adult Development and aging*. Academic press, Inc. pp.84~85.

- Christ. C. T. (1984). *Victorian and modern poetics*,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td.
- Costa, P., McCrae, T. & Robert R. (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1), pp.5~13.
- Cox, C. L., Glick, W. H. (1986). Resume evaluations & cosmetics Use : When more is not better, *sex roles*, 14(1/2), pp.51~58.
- Dichter. E. (2002). *The strategy of Desire*: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New jersey.
- Edwin, R., Wallace IV. & John G. (2008). *History of Psychiatry and Medical psychology*.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p.443.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Engler, B. (2008). *Personality theory an introduction* (8th ed). Boston, NA : Houghto Mifflin.
- Eysenck, H. J. (1997). *Dimensions of Personality*. London, U.K. : Routledge & Kegan Paul.
- Frank, K. (2002). *Romantic Image*. New York : British library cataloguing in publication data.
- Futures, M. S. (2008). *The Politics of Postsecular Religion*. New York : Chichester.
- Gattell, R. B. (2007). *The Scientific analysis of personality*. London : Penguin.
-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W. 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6), pp.504~528.
- Graham, J. A., Kligman. A. M. (1984). Cosmetic therapy for the

- elderly. *J. Soc. Cosmet. Chem*, 35(14), pp. 133~145.
- Hardeep, K. S. (2010). *Psychology, part1. Connaught circus* : New Delhi, pp.440~441.
- Hoelter, J. W. (1979). 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fear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5), pp.996~999.
- James E. H. (2003). *Shakespeare and the history of soliloquies* : Rosemont Publishing & Printing Corp. p.193.
- John, O. P., Srivastava, S. (1999). The Big-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2, pp.102~138.
- Jonassen, D. H., Grabowski, B. (2011).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Learning and instruction*.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367.
- Joshua, L. (2011). *Fast forward your makeup-10 steps to create the winning look at work and at play*. Singapore : Candid creation publishing LLP.
- Kirsten, S., Piet, D. (2011). *The Vibrant relationship*. Karnac Books. p.40.
- Kubler-Ross, E. (1981). *Living with Death and Dying*. New York : Macmillan. p.18.
- Marks, R. B. (1976). Operationaliaing the concept of store image. *Journal of Retailing*. 52(3), pp.37~46.
- Malone, D. A., Lartey P. (2004). Depression and Suicide. In R. S. Lang & D. D. Hensrud(Eds). *Clinical preventive medicine II*.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p.69~80.
- McCrae, R. R.,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pp.81~90.
- Ozer D. J., Benet, M. (2006). Personality and the Prediction of Consequenti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pp.401~421.
- Preston, J. D. (2006). *Managing Your Moods.* New York : Penguin.
- Phares, E. J. Chaplin, W. F. (1997). *Introduction to personality* (4th ed.). New York : Longman. pp.8~9.
- Susan, C. (2004). *Beauty therapy fact file*, Heinemann educational publishers, Haley Court, Jordan hill, Oxford. pp.165~178.
- Schultz, D., Schultz, S. (2012). *Theories of personality* (10th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p.7.
- Smith, T. W. (1990). *Ethnic Images*,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 Sullivan, H. S. (1997).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Thomson, C. J., Hirschman, E. C. (1995). Understanding the socialized body: A poststructuralist analysis of consumers' self conceptions. body images and self-care practices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2), pp.139~153.
- Smith, T. W. (1990). *Ethnic Images*,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 Victor, G. C. (2006). *Older Adults' Views on death.*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Wong Paul, T. P., Reker, G. T. & Gesser, G. (1994).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DAP-R) :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s death. *Aging and Health Care*, 40(2), pp. 121~148.

大坊郁夫(1990). 社会的スキルとしてのスナ-行動. 化粧文化, 22, pp. 30~40.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akeup Behavior, Psychological Traits and Preference for the Makeup Images of Funeral Picture in Elderly Women

Choi, Jung Soon

Departmen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lderly women's makeup behavior, psychological traits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their preference for makeup images in daily life(hereinafter called general makeup image) and for the makeup images of their own future funeral pictures.

As for the method of research, a research study was implemented by using the questionnaire method. Seven factors were selected for makeup behavior: fashionability, conformity, subjectivity, instrumentality,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conspicuousness. The selected psychological traits were personality, death attitude and depression. Preference for general makeup image and for the makeup image of funeral picture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four: agreeableness, refinement, individuality and digni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51 female elderly residents in and around Seoul who were in their 60s to 80s.

Concerning data analysis, factor analysis, Cronbach alpha coefficient,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women had a less preference for the individuality, agreeableness, refinement and dignity of the makeup images of funeral picture than for the same factors of general makeup image. They had a lower preference for individuality in both makeup images, and had a sort of strong preference for agreeableness, refinement and dignity.

Second,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their mean scores for each item of preference for the two kinds of makeup images was analyzed, and they had a less preference for the makeup image of funeral picture than for general makeup image overall.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quietness and neatness. Regarding the priority of preference, they gave top priority to comfortableness in relation to general makeup image, followed by femininity, gentleness and beauty. As to the makeup image of funeral picture, neatness was most favored, followed by femininity, comfortableness and gentleness. Thus, the elderly women sought after a neat makeup image for their own funeral pictures the most.

Third, in regard to the influence of makeup behavior, personality, death attitude, depress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preference for general makeup image, their preference for an agreeable makeup image was analyzed. As a result, the women who put more emphasis on conspicuousness and instrumentality in terms of makeup behavior, who

were more depressed due to unhappiness, physical weakening and waning social activities placed less importance on agreeableness. The women who placed more stress on subjectivity in terms of makeup behavior, who had a more friendly personality and who leaned more toward neutral acceptance in terms of death attitude gave more weight to agreeablenes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preference for refinement, refinement was less preferred by the women who put more emphasis on conspicuousness, instrumentality and conformity in terms of makeup behavior, whose leaned more toward approach acceptance in terms of death attitude and who suffered from more depression due to waning cognitive function and physical weakening. The women who resided in Seoul, who had a more faithful personality, who placed more emphasis on pride, subjectivity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 in terms of makeup behavior and who leaned more toward neutral acceptance in terms of death attitude had a stronger preference for refine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preference for individuality, the women who spent more money to have a good appearance, who had a more faithful personality, who put more emphasis on instrumentality in terms of makeup behavior and who were more depressed due to physical weakening, unhappiness and waning cognitive function had a less preference for individuality. That was more preferred by the women who resided in Seoul, whose socioeconomic status was higher with a larger income, who had a more open and extravert personality, who placed more stress on pride and fashionability in terms of makeup behavior and who leaned more toward neutral acceptance in terms of

death attitud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preference for dignity, dignity was less preferred by the women who placed more stress on instrumentality in terms of makeup behavior and who were more depressed because of waning cognitive function, unhappiness and physical weakening. The respondents who had a more open personality and who put more emphasis on pride, individuality and fashionability in terms of makeup behavior had a stronger preference for dignity.

Fifth, concerning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women's makeup behavior, personality, death attitude, depress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preference for the makeup image of funeral picture, their preference for an agreeable makeup image was analyzed. As a result, the women who put more stress on fashionability and conspicuousness in terms of makeup behavior, who leaned more toward approach acceptance in terms of death attitude and who were more depressed because of waning social activities placed less importance on agreeableness among the makeup images. The respondents whose social economic status was higher with a larger income, who had a more friendly personality, who placed more emphasis on subjectivity in terms of makeup behavior and whose death avoidance or neutral acceptance was stronger in terms of death attitude attached more importance to agreeablenes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preference for refinement, the women who put more emphasis on conspicuousness in terms of makeup behavior, who leaned more toward approach acceptance in terms of death attitude and who were more depressed due to unhappiness and

waning social activities had a less preference for refinement. The respondents who spent more money to have a good appearance, who had a more faithful personality, who put more stress on subjectivity in terms of makeup behavior, who leaned more toward neutral acceptance or whose death avoidance was stronger in terms of death attitude had a stronger preference for refine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preference for individuality, the respondents who leaned more toward escape acceptance in terms of death attitude attached less importance to individuality among the makeup images of funeral picture, and the respondents who were better educated, who spent more money to have a good appearance, who resided in Seoul, who had a more open personality, who placed more stress on fashionability in terms of makeup behavior, whose death avoidance was stronger in terms of death attitude and who were more depressed due to emotional instability had a stronger preference for individual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preference for dignity, the respondents who dwelled in Seoul and who leaned more toward escape acceptance in terms of death attitude had a less preference for dignity among the makeup images of funeral picture, and the women who spent more money to have a good appearance, whose income was larger, who placed more stress on pride in terms of makeup behavior, whose death avoidance was stronger in terms of death attitude and who suffered from more depression due to physical weakening had a stronger preference for dignity.

Thus, makeup behavior, personality, death attitude and depression

were identified as the variables to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preference for the makeup images of funeral pictur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help make makeup for funeral picture entrenched as part of the beauty industry an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beauty industry.

부록.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자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에서 6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성격, 화장행동, 죽음태도, 우울감, 영정사진 화장이미지를 파악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소중한 내용은 다른 응답과 함께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제13조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며,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연구를 위해 소중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연구자 : 최정순

(cjs7470@hanmail.net)

지도교수 : 김경희 교수

I. 다음 항목은 성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그저 그렇 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1	2	3	4	5
2	나는 독창적이며 새로운 생각을 잘 떠올리는 사람이다	1	2	3	4	5
3	나는 활발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다	1	2	3	4	5
4	나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다	1	2	3	4	5
5	나는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1	2	3	4	5
6	나는 믿음만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2	3	4	5
7	나는 쉽게 침울해 지는 사람이다	1	2	3	4	5
8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1	2	3	4	5
9	나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1	2	3	4	5
10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	1	2	3	4	5
11	나는 수다스러운 사람이다	1	2	3	4	5
12	나는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사람이다	1	2	3	4	5
13	나는 사려깊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며 이타적인 사람이다	1	2	3	4	5
15	나는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이다	1	2	3	4	5

II. 다음은 화장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그저 그렇 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	새로운 나를 연출하기 위해 화장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1	2	3	4	5
2	나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화장법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1	2	3	4	5
3	화장은 변신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화장술로 때로는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5
5	내 얼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	1	2	3	4	5
6	TV광고나 잡지에 나오는 모델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	1	2	3	4	5
7	인기 있는 연예인의 화장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1	2	3	4	5
8	유행하는 립스틱을 꼭 한번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1	2	3	4	5
9	친구와 주변사람의 화장한 상태가 마음에 들면 똑같이 해보고 싶다.	1	2	3	4	5
10	나는 화장할 때 현재 유행하는 화장법을 따른다.	1	2	3	4	5
11	화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화장은 대인지향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나는 나의 화장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1	2	3	4	5
14	높은 사람들과 사귀는 데 품위 있는 화장이 도움된다.	1	2	3	4	5
15	나는 화장할 때 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좋다.	1	2	3	4	5

번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그저 그렇 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6	나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화장을 했을 때 그 그룹의 일원임을 더욱 느낀다.	1	2	3	4	5
17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비슷한 스타일이나 색상의 화장품을 택한다.	1	2	3	4	5
18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화장을 해야 편하다.	1	2	3	4	5
19	내가 속한 집단의 화장하는 기분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0	나는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 대체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화장과 비슷하게 화장을 하려고 신경 쓴다.	1	2	3	4	5
21	화장행위는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2	화장할 때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화장이 좋다.	1	2	3	4	5
23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4	남들의 화장법에 좌우되기 보다는 나 나름대로의 화장법을 고수하는 편이다.	1	2	3	4	5
25	화장은 곧 나의 개성표현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6	모임에서 관심을 끌만한 화장이 좋다.	1	2	3	4	5
27	눈에 띄는 화장을 하고 싶다.	1	2	3	4	5
28	화장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1	2	3	4	5
29	비싸도 유명상표의 화장품이 자존심을 세워준다고 본다.	1	2	3	4	5
30	값싼 화장품을 바르면 내 신분이 낮아 보이는 것 같다.	1	2	3	4	5

Ⅲ. 다음 항목은 죽음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그저 그렇 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	죽음은 분명 무서운 경험일 것이다	1	2	3	4	5
2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불안감이 높아진다.	1	2	3	4	5
3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4	나는 죽으면 천당에 갈 것 이라 믿는다.	1	2	3	4	5
5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	2	3	4	5
6	죽음은 절대 만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1	2	3	4	5
7	죽음은 이 끔찍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해준다	1	2	3	4	5
8	죽음에 관한 생각이 들 때면 그것을 밀어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9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1	2	3	4	5
10	나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1	2	3	4	5
11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12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측면이다	1	2	3	4	5

번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그저 그렇 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3	죽음은 신과 영원한 축복과 결합하는 것이다	1	2	3	4	5
14	죽음은 새롭고 영광된 삶을 기약하는 것이다	1	2	3	4	5
15	나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다	1	2	3	4	5
16	나는 죽음이 정말 두렵다	1	2	3	4	5
17	나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생각을 피한다	1	2	3	4	5
18	죽음이 내가 아는 모든 것과의 마지막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두렵다	1	2	3	4	5
19	나는 죽음이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0	나는 죽음이라는 주제와 무관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1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위안을 주는 한 가지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다	1	2	3	4	5
22	나는 죽음이 인생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3	죽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1	2	3	4	5
24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고대하고 있다.	1	2	3	4	5
25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1	2	3	4	5

IV. 다음 항목은 우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그저 그렇 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낀다.	1	2	3	4	5
2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3	앞날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1	2	3	4	5
4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1	2	3	4	5
5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1	2	3	4	5
6	즐겁고 행복하다.	1	2	3	4	5
7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1	2	3	4	5
8	별일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진땀이 날 때가 많다.	1	2	3	4	5
9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예전보다 힘이 많이 든다.	1	2	3	4	5
10	내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1	2	3	4	5
11	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1	2	3	4	5
12	내 판단력은 여전히 좋다.	1	2	3	4	5
13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1	2	3	4	5
14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1	2	3	4	5
15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V.나의 평상시 일반 화장이미지와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화장이미지의 항목에 대하여 좋아하는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					
이미지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그저 그렇 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이미지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그저 그렇 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 부티나는	1	2	3	4	5	1. 부티나는	1	2	3	4	5
2. 품위있는	1	2	3	4	5	2. 품위있는	1	2	3	4	5
3. 분위기 있는	1	2	3	4	5	3. 분위기 있는	1	2	3	4	5
4. 돋보이는	1	2	3	4	5	4. 돋보이는	1	2	3	4	5
5. 사랑스러운	1	2	3	4	5	5. 사랑스러운	1	2	3	4	5
6. 예의가 바른	1	2	3	4	5	6. 예의가 바른	1	2	3	4	5
7. 멋있는	1	2	3	4	5	7. 멋있는	1	2	3	4	5
8. 화사한	1	2	3	4	5	8. 화사한	1	2	3	4	5
9. 세련된	1	2	3	4	5	9. 세련된	1	2	3	4	5
10. 아름다운	1	2	3	4	5	10. 아름다운	1	2	3	4	5
11. 밝은	1	2	3	4	5	11. 밝은	1	2	3	4	5
12. 산뜻한	1	2	3	4	5	12. 산뜻한	1	2	3	4	5
13. 단정한	1	2	3	4	5	13. 단정한	1	2	3	4	5
14. 여성적인	1	2	3	4	5	14. 여성적인	1	2	3	4	5
15. 자애로운	1	2	3	4	5	15. 자애로운	1	2	3	4	5

일반 화장이미지 선호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					
이미지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그저 그렇 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이미지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그저 그렇 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6. 매력적인	1	2	3	4	5	16. 매력적인	1	2	3	4	5
17. 젊어 보이는	1	2	3	4	5	17. 젊어 보이는	1	2	3	4	5
18. 노숙한	1	2	3	4	5	18. 노숙한	1	2	3	4	5
19. 암전한	1	2	3	4	5	19. 암전한	1	2	3	4	5
20. 따뜻한	1	2	3	4	5	20. 따뜻한	1	2	3	4	5
21. 부드러운	1	2	3	4	5	21. 부드러운	1	2	3	4	5
22. 온화한	1	2	3	4	5	22. 온화한	1	2	3	4	5
23. 편안한	1	2	3	4	5	23. 편안한	1	2	3	4	5
24. 성실한	1	2	3	4	5	24. 성실한	1	2	3	4	5
25. 강렬한	1	2	3	4	5	25. 강렬한	1	2	3	4	5
26. 화려한	1	2	3	4	5	26. 화려한	1	2	3	4	5
27. 고상한	1	2	3	4	5	27. 고상한	1	2	3	4	5
28. 근엄한	1	2	3	4	5	28. 근엄한	1	2	3	4	5
29. 강인한	1	2	3	4	5	29. 강인한	1	2	3	4	5
30. 독특한	1	2	3	4	5	30. 독특한	1	2	3	4	5
31. 대담한	1	2	3	4	5	31. 대담한	1	2	3	4	5
32. 눈에 띄는	1	2	3	4	5	32. 눈에 띄는	1	2	3	4	5

VI. 다음은 인구통계적 특성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시(√) 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 1) 당신의 연령은? ()세
- 2) 당신의 거주지는?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세종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청도 ⑪ 전라도 ⑫ 경상도 ⑬ 제주도 ⑭ 기타()
- 3) 지난 한 달 동안 지출한 외모관리비는?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20만원 미만 ③ 20만~30만원 미만
④ 30만~40만원 미만 ⑤ 40만~50만원 미만 ⑥ 50만~60만원 미만
⑦ 60만~70만원 미만 ⑧ 70만~80만원 미만 ⑨ 80만원 이상
- 4) 본인이 판단하는 당신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①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 5) 현재 본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① 하지 않는다 ② 한다
- 6) 종교는?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천주 ④ 불교 ⑤기타종교()
- 7) 당신의 학력은?
① 무학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⑥ 대학졸 ⑦ 대학원졸
- 8) 귀댁의 월평균 가구 전체의 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 9) 당신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10) 현재 가족 형태는?
① 일인세대 ② 부부세대 ③ 배우자와 자녀
④ 배우자와 손자손녀 ⑤ 기타()
- 11) 당신은 어떤 이미지의 사진이 당신의 영정사진이 되길 바랍니다?
① 일상적인 생활 사진 ② 신분증용 증명사진 ③ 결혼식 사진
④ 영정용으로 찍은 영정사진 ⑤ 졸업식이나 특별한 날 찍은 의미있는 사진
⑥ 기타()
- 12) 당신은 당신의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긴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